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어 문말의 ‘-지 뭐’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李 青 香

한국어 문말의 ‘-지 뭐’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이 청 향

이청향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전영철 (인)

부 위 원 장 문숙영 (인)

위 원 박진호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문말의 ‘-지 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 뭐’의 용법을 명제와 관련된 용법 행위와 관련된 용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기술한 뒤, ‘-지 뭐’의 담화 기능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지 뭐’와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 역시 살펴볼 것이다.

‘-지 뭐’의 용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데 앞서, 먼저 제2장에서는 ‘-지 뭐’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 뭐’는 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 뒤에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지 뭐’는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과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로 나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 뭐$_1$’의 통사적 특성을 문장 유형, 선행 용언, 높임 표현, 시제 등 방면으로 살펴보았다. ‘-지 뭐$_1$’의 의미적 특성을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김’, ‘의심할 여지가 없음’, ‘심드렁함, 짜증/귀찮음’, ‘어찌할 수 없음’ 등 4가지 의미로 드러난다.

제4장에서는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도 문장 유형, 선행 용언, 높임 표현, 시제 등 방면으로 살펴보았고 ‘-지 뭐$_1$’과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지 뭐$_2$’의 의미적 특성을 행위의 주체에 따라 살펴본 결과 행위 주체가 화자, 제3자, 화자와 제3자일 때 모두 ‘행위 승인’의 의미만 드러낸다. 그 외, 행위 주체가 청자인 경우, 주로 ‘행위 권고’와 ‘행위 승인’의 의미를 드러내고 행위 주체가 화자와 청자인 경우, 주로 ‘행위 제안’의 의미로 드러낸다.

제5장에서는 담화 속에서 나타내는 ‘-지 뭐’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지 뭐’의 담화 기능을 살펴본 결과 주로 ‘더 이상의 논의 중지’, ‘평가절하’,

‘협상/교섭’, ‘완화’, ‘강조’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지 뭐’의 관련 표현으로 간주한 ‘-네 뭐’, ‘-ㄴ데 뭐’, 중국어 ‘呗’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지’, ‘뭐’, 종결형, 종결어미, ‘呗’, 양태, 담화기능
학번: 2020-25619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2

1.3. 논의의 구성 ····· 6

2. 기본적 논의 ····· 7

2.1. '-지 뭐' 구문의 형성 ····· 7

2.1.1. 종결어미 '-지' ····· 7

2.1.2. 담화표지 '뭐' ····· 10

2.1.3. '-지 뭐' 및 분류기준 ····· 14

3. 명제와 관련된 '-지 뭐' ····· 23

3.1. '-지 $뭐_1$'의 통사적 특성 ····· 23

3.2. '-지 $뭐_1$'의 의미적 특성 ····· 27

3.2.1. '대수롭지 않게 여김' ····· 27

3.2.2. '의심할 여지가 없음' ····· 30

3.2.3. '심드렁함, 짜증/귀찮음' ····· 32

3.2.4. '어찌할 수 없음' ····· 34

4. 행위와 관련된 '-지 뭐' ····· 35

4.1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 ····· 35

4.2 '-지 $뭐_2$'의 의미적 특성 ····· 39

4.2.1. 주체가 화자인 경우: 행위 승인 ····· 40
4.2.2. 주체가 화자이외의 경우: 행위 권고, 승인 ····· 44
4.2.3. 주체가 화자, 화자 이외의 사람: 행위 제안, 승인 ····· 47

5. '-지 뭐'의 담화 기능 ····· 51
5.1. '더 이상의 논의 중지' 기능 ····· 51
5.2. '평가절하' 기능 ····· 52
5.3. '협상/교섭' 기능 ····· 54
5.4. '완화' 기능 ····· 55
5.5. '강조' 기능 ····· 55

6. '-지 뭐' 관련 표현 ····· 57
6.1. '-네 뭐' ····· 58
6.2. '-ㄴ데 뭐' ····· 61
6.3. 중국어 '呗' ····· 63

7. 결론 ····· 69

참고문헌 ····· 71
<부록> ····· 74
<中文摘要> ····· 85

표 목 차

<표 1> 선행 연구: '뭐'가 '-지' 뒤에 쓰일 경우 나타내는 의미표 ····· 5

<표 2> 선행 연구: 종결어미 '-지'의 의미 ····· 9

<표 3> 선행연구: 담화표지 '뭐'의 기본 의미 및 세부적 의미 기능 ····· 12

<표 4> '-지 뭐$_1$'과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 ····· 38

<표 5> '-지 뭐$_1$'과 '-지 뭐$_2$'의 의미적 특성 ····· 50

<표 6> '뻐'의 선행연구 정리 ····· 66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문말의 '-지 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 뭐'의 용법을 명제와 관련된 용법 행위와 관련된 용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기술한 뒤, '-지 뭐'의 담화 기능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지 뭐'와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 역시 살펴볼 것이다.

일상 대화에서 '-지 뭐'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구어 말뭉치에서 '지 뭐'와 '지뭐'를 검색한 결과 '지 뭐'는 4740회, '지뭐'는 267회 나타난다.[1] 따라서 '-지 뭐'은 구어에서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지 뭐'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ㄱ. 동료: (서류는 보지도 않고) 어휴, 혜란씨..이벤트 일 많이 힘들지? 그치?
혜란: 회사일이 다 그렇지 뭐. (서류 보며) 어서 그거나 보고 사인해 줘. <알게될거야, 11회>
ㄴ. 한영: 형부, 우리 언니 가르치느라 고생하셨어요.
영수: (인자한 미소 지으며) 고생은 뭐. 아주 잘하든데?
해영: 들었지? 여보, 내일도 시간되시죠?
영수: 그럼. 내일은 아침 일찍 연습하지 뭐. <2008, 코끼리, 76회>

(1)은 문말에 '-지 뭐'가 사용된 예문이다. 비록 모두 '-지 뭐'를 사용했지만 의미상 차이가 있다. (1ㄱ)의 '-지 뭐'는 상대방이 발화한 명제에 대한

1) 말뭉치에서 '-지 뭐.'와 '지뭐.'로 검색하여 추출한 결과이다. '지 뭐'와 '지뭐'는 띄어쓰기상 차이는 있지만 의미나 용법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 '-지 뭐' 구문의 용례를 살펴볼 때 '-지뭐'의 용례도 포함할 것이다.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1ㄴ)의 '-지 뭐'는 상대방의 질문에 나타난 사태/행위의 수행에 대해서 화자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 뭐' 구문은 의미상 크게 명제와 관련된 것과 행위와 관련된 것 두 부류로 나뉨을 확인할 수 있다.

1.2. 선행연구

'-지 뭐'를 중심적으로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듯하다. 담화표지 '뭐'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연구에서 종결어미 '-지' 뒤에 '뭐'가 나타나는 예문을 함께 제시하면서 어떤 의미 기능이 있는지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 뭐'를 주된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김문기·김형복(2018)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김문기·김형복(2018)에서는 우선 '-지 뭐' 구성의 문법적 제약을 살폈다. 이 연구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원시 말뭉치를 문어와 구어로 나눠서 '-지 뭐' 구성의 출현 빈도를 제시하고 어떠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 뭐' 구성이 나타낼 수 있는 용법들을 살펴본 결과, 문어에서는 '감정의 간접적 표현', '마땅함', '확신', '문제없음, 만족'이라는 4가지 의미 부류로 대별하였고, 구어에서는 '인정, 당연함, 위로, 격려, 달관, 이해하려 노력함', '체념, 어쩔 수 없음, 특별하지 않음, 기대하지 않음', '부적절함'이라는 3가지 의미부류로 대별하였다. 이런 다양한 용법들을 종합하여 '-지 뭐' 구성의 핵심적인 용법은 '주로 화자의 주관적,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 뭐'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상당히 세분해서 살펴보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의미 기능들 사이의 관련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지 뭐'의 여러 의미/용법들을 세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의미/용법들 사이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2)]

2) 박재연(2006:17-18)에서는 한국어 양태 어미를 기술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어미가 갖는 모든 용법들을 검토해 보고 그 용법들을 설명

그 외에 담화표지 ‘뭐’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연구에서 ‘뭐’가 ‘-지’ 뒤에 쓰일 경우 나타나는 예문을 함께 제시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급하는 연구로는 이한규(1999), 구종남(2000), 정윤희(2005), 남길임·차지현(2010), 송인성(2013), 주지연(2020) 등이 있다.

이한규(1999)에서는 Grice(1975)의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이용하여 담화표지 ‘뭐’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뭐’에 대해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기본 의미를 설정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독립된 발화 역할을 하는 ‘뭐’와 발화의 부분으로 쓰이는 ‘뭐’로 나누었다. 발화의 부분으로서의 ‘뭐’의 담화 의미는 ‘발화의 불확실성’, ‘화자의 주저함’, ‘발화 교정’, ‘화자의 선택’, ‘발화 내용의 강조’ 등 5가지로 파악되었다. 또한 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 ‘-지’ 뒤에 나타나는 예문에 대해, ‘발화 내용의 강조’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종남(2000)에서는 담화표지 ‘뭐’의 문법화 과정을 설명하고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뭐’의 기원적인 기본 의미를 ‘의문’ 또는 ‘불확실함’로 보고, 이로부터 파생된 담화적 기능을 18가지로 세분하였다. 또한 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 ‘-지’ 뒤에 나타나는 예문에 대해, 발화 내용을 강조하고 이로써 단정적인 태도나 당연함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정윤희(2005)에서는 의문사 ‘뭐’가 담화표지로 발달할 때의 형태적 특징과 의미기능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담화표지의 위치는 문장 내에서 꽤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어미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세부적인 양상을 섬세하게 기술하는 것이고, 단점은 양태의 의미 체계 내에서 해당 어미가 가지는 위치를 분명히 규정할 수 없고, 양태 어미가 구현하는 여러 의미 기능 사이의 관련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양태의 하위 의미 영역 체계를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양태 어미가 양태의 의미 영역 체계에서 어느 의미 영역을 담당하는지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양태의 의미 영역 체계 내에서의 각 어미의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양태 어미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고, 또한 양태 어미들 사이의 의미론적 관련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의미 기능의 미세한 양상을 기술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두 방법의 적절한 조화와 절충이 필요한 듯하다.

자유롭지만 ‘실망, 유감, 체념’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는 대체로 문장 끝에 온다고 하였다. 또한 종결어미 ‘-지’로 끝나는 평서문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 ‘-지’ 뒤에 결합한 문장은 ‘체념, 실망’ 등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며, 화자가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내재화 또는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입장을 바탕으로 대상을 평가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고 하였다.

남길임·차지현(2010)에서는 담화표지 ‘뭐’의 출현 환경, 빈도, 형태·통사적 사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뭐’의 의미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뭐’의 위치를 절 경계 위치와 자유 위치로 나누어 사용 패턴을 살펴보았다.[3] ‘-지 뭐’ 구성은 ‘뭐’가 절 경계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이며, 이 중에서도 ‘양태어미 패턴’에 속한다. 이 구성에서 발화자는 ‘뭐’를 통해 ‘명제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인 태도를 표출’한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화자의 부정적인 심리 태도가 반영된다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음’, ‘대수롭지 않음’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차지현(2010)에서는 담화표지 ‘뭐’가 문말에 사용할 때의 운율적 특성과 기능을 살폈다. 담화표지 ‘뭐’는 발화 끝 억양구 경계에서 실현되어 ‘화자의 부정적 심리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뭐’의 경계 성조와 길이의 차이, 즉 운율적 특성의 차이로 ‘뭐’의 기능과 발화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송인성(2013)에서는 담화표지 ‘뭐’의 기능을 비단정, 시간벌기, 반박(불만), 평가절하, 체념 등의 8가지로 제시하였다. 그 중 종결어미 ‘-지’ 뒤에 담화표지 ‘뭐’가 나타난 경우에는 비단정, 평가절하, 체념 등의 용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주지연(2020)에서는 담화표지로 발달한 의문사 ‘뭐’가 종결어미 ‘-지’ 뒤에 붙은 구성인 ‘-지 뭐’ 구성과 선어말어미 상당구성으로 발달한 ‘-지뭐

3) 절 경계 위치에서의 사용 패턴은 ‘접속부사 패턴, 어휘적 담화표지 패턴, 양태어미 패턴’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고, 자유 위치에서의 사용 패턴은 ‘대용어 패턴, 나열 및 예시 패턴, 수사의문문 패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구성을 구별하여 다루었다. 이 두 구성의 차이점에 대해, 다른 요소의 결합 가능 여부, ‘-었-’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요’ 개재 가능 여부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뭐’는 종결어미 뒤에 출현하여 담화표지로 기능하기도 하고, 선어말어미 상당 구성 ‘-지뭐(이)-’가 한 덩어리로서 선어말어미처럼 기능하여 과거에 발견한 의외의 사실을 나타내는 양태 표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 ‘-지’ 뒤에 나타나는 예문에서 드러나는 의미에 대해 주장한 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선행 연구: ‘뭐’가 ‘-지’ 뒤에 쓰일 경우 나타내는 의미표

<table>
<tr><td>선행연구</td><td colspan="2">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 ‘-지’ 뒤에 나타나는 경우의 의미 기능</td></tr>
<tr><td>이한규(1999)</td><td colspan="2">발화 내용 강조</td></tr>
<tr><td>구종남(2000)</td><td colspan="2">발화 내용 강조, (그 결과) 단정적인 태도, 당연함</td></tr>
<tr><td>정윤희(2005)</td><td colspan="2">체념, 실망</td></tr>
<tr><td>남길임·차지현(2010)</td><td colspan="2">큰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td></tr>
<tr><td>송인성(2013)</td><td colspan="2">비단정, 평가절하, 체념</td></tr>
<tr><td rowspan="5">김문기·김형복(2018)</td><td rowspan="3">문어</td><td>감정의 간접적 표현</td></tr>
<tr><td>당연함, 예측 가능함, 마땅함, 확신, 문제없음, 만족</td></tr>
<tr><td>겸연쩍음, 심드렁함, 푸념, 체념, 어쩔 수 없음, 안타까움, 중요하지 않음</td></tr>
<tr><td>일반화</td></tr>
<tr><td rowspan="2">구어</td><td>인정, 당연함, 위로, 격려, 달관, 대수롭지 않음, 믿음, 상대방의 탓이 아님, 이해하려 노력함</td></tr>
<tr><td>체념, 어쩔 수 없음, 특별하지 않음,</td></tr>
</table>

		기대하지 않음, 부적절함
		일반화, 일반적. 보편적 상황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종결어미 '-지'와 담화표지 '뭐'에 대해 살펴보고, 두 요소가 결합할 때 둘의 단순합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미도 가짐을 밝힌다. 또한 '-지 뭐' 구성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과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로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의 선행 용언, 높임 표현, 시제 등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지 뭐$_1$'의 의미 특성을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의 선행 용언, 높임 표현, 시제 등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지 뭐$_2$'가 행위의 주체에 따라 어떤 용법과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지 뭐'의 담화 기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네 뭐', '-ㄴ데 뭐', 중국어 '呗' 등 '-지 뭐'와 비교할 만한 관련 표현을 다룬다. 이 각각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지 뭐'와 비교한다.

제7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2. 기본적 논의

2.1. ‘-지 뭐’ 구문의 형성

김문기·김형복(2018: 34-36)에서 논의하였듯이 ‘-지 뭐’ 구문은 종결어미 ‘-지’와 ‘뭐’, 이 두 요소의 사전 뜻풀이 의미가 단순하게 결합한 경우도 있지만, 두 요소의 결합으로는 그 의미를 마땅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먼저 종결어미 ‘-지’와 담화표지 ‘뭐’ 각각을 살펴보고, ‘-지 뭐’ 구문이 단순한 의미 결합 표현이 아니라 두 요소 각각의 의미의 단순합을 넘어서는 의미 기능을 가짐을 밝히고자 한다.

2.1.1. 종결어미 ‘-지’

종결어미 ‘-지’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고영근(1976), 장경희(1985)에서는 주로 종결어미 ‘-지’가 어떤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주목하였다. 고영근(1976: 44)에서는 ‘-지’의 의미를 ‘화자의 주관적 상념을 표시’하는 것로 파악하였고, 장경희(1985: 108-112)에서는 종결어미 ‘-지’가 [진술], [확인하기 위한 질문], [명령], [제안], [약속], [바람], [다짐] 등의 문맥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이런 문맥적인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결어미 ‘-지’의 핵심 의미는 [이미 앎]이라고 하였다.

서정수(1984: 44), 한길(1991), 노은주(2016)에서는 주로 서법의 관점에서 ‘-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길(1991: 49-63)은 ‘-지’가 평서문에서는 [약속], [회상 서술],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서술]의 의미를 나타내고, 의문문에서는 [추정 확인 물음](판정의문문),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물음](설명의문문)의 의미를 나타내며, 청유문에서는 [함께 하기를 부드럽게 제의]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명령문에서는 [해 주기를 부드럽게 권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4)]

노은주(2016)은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바탕으로 하여 '-지'에 대해 화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표상을 다시 표상하는 상위표상(meta-representation) 표지로 규정하였다. 평서문에서는 [화자의 믿음에 대한 확인], 의문문에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인을 구함], 명령문에서는 [제안], [약속]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박재연(2006)에서는 '-지'의 의미를 인식 양태 용법과 행위 양태 용법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지'의 인식 양태 의미는 다시 ①정보의 내면화 정도([이미 앎])과 ②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기지 가정])으로 나뉘며, '-지'의 행위 양태 의미는 다시 ①재귀적 혹은 대타적 조건 부과([제안]), ②대타적 조건 부과([기원])로 나뉜다고 하였다.

최수정(2014)은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종결어미 '-지'의 인식 양태적 의미에 대해 표현론적 관점[5)]에서 의미 영역을 검토하고 해석론적 관점에서 세부적인 양태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미 앎]의 의미를 '과거 지각 지속'과 '과거 지각 단절'로 세분하고, [기지 가정]의 의미를 '사실적 가정'과 '당위적 가정'으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정경미(2017)은 '-지'의 핵심 의미를 [(사유의 과정을 포함한) 이미 앎]과 [수용의 당위성 전제]로 설정하였다. 인식과 관련된 '-지'는 화/청자의 정보 소유 상황에 따라 [재인식], [동의], [재확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의지와 관련된 '-지'는 당위성이 강한 경우 청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고 당위성이 약한 경우 화자의 대한 [기원]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

4) 한길(1986,1991: 49-63)의 '-지'의 의미에 대한 기술은 박재연(2004: 145)를 참고하였다.

5) 최수정(2016: 280, 각주 1)에서 표현론적 관점과 해석론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해석론적 관점'이란 하나의 개별 어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도 미세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표현론적 관점'이란 하나의 개별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의미 영역의 체계를 설정하고 각 어휘가 의미 영역 체계 내에서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방법을 일컫는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종결어미 ‘-지’의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선행 연구: 종결어미 ‘-지’의 의미

<table>
<tr><td>선행연구</td><td colspan="4">종결어미 ‘-지’의 의미</td></tr>
<tr><td>고영근(1976)</td><td colspan="4">화자의 주관적 상념</td></tr>
<tr><td rowspan="2">장경희(1985)</td><td>핵심 의미</td><td colspan="3">이미 앎</td></tr>
<tr><td>문맥 의미</td><td colspan="3">진술, 확인하기 위한 질문, 명령, 제안, 약속, 바람, 다짐</td></tr>
<tr><td rowspan="4">한길(1991)</td><td>평서문</td><td colspan="3">약속, 회상서술,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서술</td></tr>
<tr><td>의문문</td><td colspan="3">추정 확인 물음,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물음</td></tr>
<tr><td>청유문</td><td colspan="3">함께 하기를 부드럽게 제의</td></tr>
<tr><td>명령문</td><td colspan="3">해 주기를 부드러운 권유</td></tr>
<tr><td rowspan="2">박재연(2006)</td><td>인식 양태</td><td colspan="3">이미 앎, 기지 가정</td></tr>
<tr><td>행위 양태</td><td colspan="3">제안, 기원</td></tr>
<tr><td rowspan="2">최수정(2014)</td><td rowspan="2">인식 양태</td><td>이미 앎</td><td colspan="2">과거 지각 지속, 과거 지각 단절</td></tr>
<tr><td>기지 가정</td><td colspan="2">사실적 가정, 당위적 가정</td></tr>
<tr><td rowspan="3">노은주(2016)</td><td>평서문</td><td colspan="3">화자의 믿음에 대한 확인</td></tr>
<tr><td>의문문</td><td colspan="3">화자의 믿음에 대한 확인을 구함</td></tr>
<tr><td>명령문</td><td colspan="3">제안, 약속</td></tr>
<tr><td rowspan="2">정경미(2017)</td><td>인식 관련</td><td colspan="2">(사유 과정을 포함한) 이미 앎</td><td>재인식, 동의, 재확인</td></tr>
<tr><td>의지 관련</td><td colspan="2">수용의 당위성 전제</td><td>제안, 바람</td></tr>
</table>

2.1.2. 담화표지 '뭐'

이한규(1999)에서는 담화표지 '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무엇'의 축약형인 대명사 '뭐'와 '무엇'은 의미 차이 없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담화표지 '뭐'는 오로지 축약된 형태로만 사용된다.
둘째, 담화표지 '뭐'는 자신이 나타내는 문장의 명제 의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셋째, 담화표지 '뭐'는 어떤 조사와도 함께 쓰이지 않는다.
넷째, 담화표지 '뭐'는 다른 의문사와 더불어 나타날 수 없다.

'-지 뭐'에 들어 있는 '뭐'의 특징을 담화표지 '뭐'의 특징과 비교함으로써 이 둘이 같은 것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2) ㄱ. 종남: 시간 없어요? 그렇지 본부장님 맨날 바쁘지 뭐.
<별난 여자 별난 남자, 49회>
ㄱ′. 종남: 시간 없어요? 그렇지 본부장님 맨날 바쁘지 *무엇.
ㄴ. 지수: 어떡하실 건지 할아버지 마음이시지 뭐.
<내 남자의 여자, 12회>
ㄴ′. 지수: 어떡하실 건지 할아버지 마음이시지.
ㄷ. 봉순: 여보. 궁금하대잖아. 보여주지 뭐. <내조의 여왕, 9회>
ㄷ′. 봉순: 여보 궁금하대잖아. 보여주지 *뭐{를/가/부터...}

(2ㄱ)과 (2ㄱ′)을 살펴보면 '-지' 뒤의 '뭐'는 오로지 축약된 형태로만 사용된다. 만약 이것이 전형적인 대명사라면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할 텐데, (2ㄱ′)을 보면 비문이므로, 이 '뭐'가 담화표지임을 알 수 있다.
(2ㄴ)과 (2ㄴ′)을 보면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는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명제적 의미상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두 할아버지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뭐'가 추가된다고 해서 명제적 의미가 변해지는 않는다. 즉 이 '뭐'는 문장의 명제 의미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이 '뭐'가 담화표지임을 알 수 있다.

(2ㄷ)에서 '봉순'은 아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보여주겠다고, 즉 화자가 상대방에게 보여주겠다는 행위 수행에 관한 판단을 나타내는데, (2ㄷ′)에서 '뭐를', '뭐가', '뭐부터'처럼 '뭐' 뒤에 조사를 추가하면 비문이 된다. 이 또한 담화표지 '뭐'와 동일한 성질이다.

또한 '-지 뭐' 구문에서는 '뭐' 외에는 다른 의문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는 듯이 보인다.

(3) 우리가 지금처럼 가난하게 사는 거, 다 누구 덕분이지 뭐.

예문 (3)에 '누구'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의문사가 아니다. 여기서 발화자는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이 '누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했기 때문에 이때의 '누구'는 의문사가 아니라 비한정사(indefinit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 같은 것은 담화표지 '뭐'가 다른 의문사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담화표지 '뭐'의 의미 기능 관련 선행연구를 잠시 살펴보겠다. 강상호(1989)는 '물음이나 미정'의 뜻 외에 '놀라움 표시', '내용이나 반대의 뜻 강조', '겸손성', '사양', '가벼운 반박', '자신감', '확신' 등 다양한 의미를 나열하여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 의미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았다.

김선희(1995)는 '뭐'의 기본 의미를 '강도의 약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의미 기능을 '소극적 부정과 동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 '평가절하' 등으로 나눠서 제시하였다.

그 후의 연구를 살펴보면 '뭐'의 기본 의미를 '확실하지 않음' 내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이한규 1999, 구종남 2000, 이정애 2002, 이효진 2005, 정윤희 2005).[6)]

김명희(2005)에서는 '뭐'의 기본 의미를 '책임 결여'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의미 기능을 '화자의 발언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간 벌기', '평가절하'의 셋으로 나누었다.

남길임·차지현(2010)과 송인성(2013)은 '뭐'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지 않았다. 남길임·차지현(2010)은 담화표지 '뭐'의 사용 패턴을 유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뭐'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였다. 송인성(2013)은 '뭐'의 의미 기능을 8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의미 기능에 따른 운율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담화표지 '뭐'의 기본 의미에 대한 의견은 대동소이하며, 이로부터 파생된 의미 기능들은 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담화표지 '뭐'의 기본 의미 및 세부적인 의미 기능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선행연구: 담화표지 '뭐'의 기본 의미 및 세부적 의미 기능

선행연구	기본 의미	세부적 의미 기능
강상호 (1989)	_	놀라움, 강조, 겸손성, 반박, 자신감, 불확실성 등 10가지
김선희 (1995)	강도의 약화	소극적 부정 소극적 동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 평가절하
이한규 (1999)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음	발화의 불확실성 화자의 주저함 발화 교정 화자의 선택 발화 내용 강조

6) 이 연구들에서 설정한 '뭐'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7) 송인성(2013: 91)의 <표 2>를 참고한 것이다.

구종남 (2000)	의문 불확실함	이해 불가한 상황에 대한 의문 태도 표출 머뭇거림 표시 발화 내용의 불확실성 표시 불쾌감 표출 반어적 해석 기능 평가절하의 태도 표출 화자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 불만 표시 상대의 제안/요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 표출 주어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 표출 무관심이나 비관여적 태도 표출 초점화 기능 발화 내용 강조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의식 태도 표출 상대에 대한 도전적 태도 표출 발화 내용에 대한 비단정적 태도 표출 이의 제기적인 심리 태도 표출 부정적 기능 발어사로서 막연한 심리태도 표출과 부차적 기능
이정애 (2002)	불확실한 사실	불만 시간벌기 강조 반박[7)]
김명희 (2005)	책임 결여	화자의 발언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간 벌기 평가절하
이효진 (2005)	모름 정확하지 않은 어떤 것	순수 의문 부정 금지 및 명령 확인 원망 정확하지 않은 어떤 것을 의미 주의 집중 시간 벌기 의미 강조 비난 부정 및 겸손,

정윤희 (2005)	모르는 사실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나 사물을 가리킴	시간벌기 추가 정보 제공 강조 관심 끌기 놀라움 부인(부정) 실망·유감·체념의 감정 앞선 발화를 인정하거나 부정 (돈, 시간을) 소유함
남길임· 차지현 (2010)	–	시간 벌기 상황 제시와 강조 화자의 부정적인 심리 태도 예시 비단정 내용의 범주화 거리감 유지 체면 보호와 대화 조절
송인성 (2013)	–	비단정 부드럽게 하거나 에두름 시간벌기 강조 발어사 반박(불만) 평가절하 체념

2.1.3. ‘-지 뭐’ 및 분류 기준

한국어 문말의 ‘-지 뭐’는 표면적으로 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 ‘-지’ 뒤에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두 요소의 용법이나 의미를 바탕으로 ‘-지 뭐’ 전체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이 합성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지 뭐’는 구성요소의 의미들이 합성적으로 결합한 것 이상의 의미 기능 및 통사적 특성을 가진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종결어미 '-지'와 비교할 것이다.

다음 용례를 살펴보자.

(4) 순옥: 저녁 먹었어?...어어...나두 먹었어...복실아, 오늘 우리집에 보일러 놨어. 니네 어머니가...사람 보내서 보일러 놔주셨어. 인제 수도꼭지 틀자마자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와. 너무 신기해.
복실: 정말? 어휴, 진짜 잘됐다! 잘 됐다.
복실: (그런데 눈물이 글썽글썽 어려온다.) ...어?...나? 나는 좋지 뭐..좋아... 복실이 출세했지 뭐. <넌 어느 별에서 왔니, 05회>

(5) 박교: 니 남편 늦는대냐?
은주: 네.
박교: 월말두 아닌데... (적당히들 드시는)
할머: 항시 바쁘지 뭐.
지여: (들고 들온 것도 없고 이상) 뭐 사러 나갔었니?
은주: 예... <보고 또 보고, 251-260회>

(4)는 두 모녀가 통화하는 상황인데, '순옥'은 집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뜨거운 물이 나와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딸인 '복실'은 '-지 뭐'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는 좋다', '본인이 출세했다'는 명제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여기서 담화표지 '뭐'가 가지고 있는 '강조'의 의미 기능을 이어받아, 명제에 대한 '강조'의 의미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 즉 '-지 뭐'의 의미 기능은 종결어미 '-지'와 담화표지 '뭐'가 결합하면서 두 요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5)에서 '은주'의 남편이 월말도 아닌데 늦게 들어와 뜻밖이라고 생각하는 '박교'의 발화를 듣고서, '-지 뭐'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논의하고 있는 명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더 이상의 논의 중지'[8]의 의미 기능이라고 부르겠다. 이

경우에도 두 요소의 의미의 단순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 뭐'와 종결어미 '-지'는 모두 '화자의 명제에 대한 주관적 태도' 즉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고 논의되었다.

(6) ㄱ. 용국: 아무리 잘나가도 너 외롭게 만들면 무슨 소용이야. (술잔을 비우고) 그 자식은...요즘 왜 코빼기도 안 비치냐? 맘 변한 거 아냐?
정연: 아우 아빤.. 도현씨..무지 바빠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현씨 나이에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건...정말 엄청 잘나가는 거거든. 잘나가니까 바쁠 수밖에 없지 뭐. <마이더스, 2회>
ㄱ′. (생략)... 잘나가니까 바쁠 수밖에 없지.

예문 (6ㄱ)에 '-지 뭐'가 사용되었는데, (6ㄱ′)은 여기서 '뭐'를 삭제해 본 것이다. '-지'와 '-지 뭐' 모두 '잘나가니까 바쁠 수밖에 없-'이 표현하는 명제에 작용한다. 즉 두 문장 모두 '잘나가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술했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다. (6ㄱ)은 잘나가면 바쁘다는 사실을 청자가 '기지 가정'의 의미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반면 (6ㄱ′)의 경우 아버지 '용국'이 사위가 요즘 통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자, 딸 '정연'이 '-지 뭐'를 사용하여 그 상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김'이라는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고 있다.

'-지'와 '-지 뭐' 구성의 문장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7) ㄱ. 왕굉: 그게 다 자식 키우는 재미지. <자명고, 1-21회, 23-39회>
ㄱ′. 그게 다 자식 키우는 재미지 뭐.
ㄴ. 민수: (곁에서) 너무 귀엽지? <살맛납니다, 100회>
ㄴ′. * (곁에서) 너무 귀엽지 뭐?
ㄷ. 덕구: 오늘 날씨도 별룬데 내일 나랑 같이 가지. <환상의 커플, 7회>

8) '더 이상의 논의 중지'의 의미 기능은 박진호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이다.

ㄷ′. 오늘 날씨도 별룬데 내일 나랑 같이 가지 뭐.
ㄹ. 이번에는 네가 좀 가지. (박재연,2006:208)
ㄹ′. 이번에는 네가 좀 가지 뭐.

(7ㄱ~ㄹ)은 종결어미 '-지'가 각각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에 사용된 예문이다. '-지'가 이렇게 다양한 문장 유형에 사용될 수 있는 데 비해, '-지 뭐'는 문장 유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7ㄱ′~ㄹ′)을 보면 '-지 뭐'는 (7ㄱ′)의 평서문, (7ㄷ′)의 청유문, (7ㄹ′)의 명령문에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지만, (7ㄴ′)의 의문문에서는 비문이 된다. 이다. 즉 '-지'는 문장 유형의 제약을 받지 않는 데 비해 '-지 뭐'는 의문문에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을 지닌다.

박재연(2006)에서는 종결어미 '-지'를 인식 양태 '이미 앎'과 행위 양태 '제안, 기원'의 용법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지 뭐'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종결어미 '-지'와 교체되어 쓸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8) ㄱ. 선생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시지.
ㄴ. 선생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시지?
ㄷ. 이 일은 내가 하지.
ㄹ. 이 일은 우리가 하지.
ㅁ. 이번에는 네가 좀 가지.
ㅂ. 나 먹을 것도 좀 남겨 두지.
ㅅ. 오늘 같은 날 눈이나 좀 오지.

(박재연, 2006: 204-210)

(9) ㄱ. 선생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시지 뭐.
ㄴ. *선생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시지 뭐?
ㄷ. 이 일은 내가 하지 뭐.
ㄹ. 이 일은 우리가 하지 뭐.
ㅁ. 이번에는 네가 좀 가지 뭐.

ㅂ. *나 먹을 것도 좀 남겨 두지 뭐.
ㅅ. *오늘 같은 날 눈이나 좀 오지 뭐.

(8)은 종결어미 '-지'의 문장유형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고, (9)에서는 '-지 뭐'의 문장유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박재연(2006)에 따르면 (8ㄱ~ㄴ)은 인식 양태의 용법으로 '-지'의 양태 의미는 '이미 앎'이고, (8ㄷ~ㅁ)은 행위 양태의 용법으로 '-지'의 양태 의미는 '제안'이며, (8ㅂ~ㅅ)은 행위 양태의 용법으로 '-지'의 양태 의미는 '기원'이라고 하였다.

예문(9)는 (8)의 종결어미 '-지'를 '-지 뭐'로 대체한 것이다. (9ㄱ~ㄴ)을 보면 '-지 뭐'는 종결어미 '-지'가 쓰인 인식 양태의 평서문에서는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식 양태의 의문문에서는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8ㄱ)과 (9ㄱ)은 명제 의미상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9ㄱ)은 (8ㄱ)에 비해 화자의 '이미 앎'이라는 의미에 확신의 의미가 더해진다. (8ㄴ)은 종결어미 '-지'로 화자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물어보고 있다. 반면, '-지 뭐'는 화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보다 자신이 알거나 믿고 있는 사실을 발화하면서 명제에 대한 주관적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9ㄴ)에서 보듯이 '선생님께서 집에 계시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지 뭐'의 사용은 의문문에서 비문법적이다.

(9ㄷ~ㅁ)를 보면 '-지 뭐'는 종결어미 '-지'가 행위 양태 '제안'의 의미를 나타낼 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ㄷ~ㅁ)에 비해 '제안'을 토대로 더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9ㅂ~ㅅ)을 보면 종결어미 '-지'의 행위 양태 의미가 '기원'일 경우 '뭐'를 추가하면 비문이 된다. '기원'은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태를 나타내며 이 사태가 화자에게 중요하다거나 큰 의미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지 뭐'는 명제나 사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김'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므로 '기원'의 의미와는 모순되는 면이 있다.

김문기·김형복(2018: 54)에서 '-지 뭐'가 주로 '화자의 주관적·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지 뭐' 구문의 용례들을 검토한 결과 본고에서는 '-지 뭐' 구문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10) ㄱ. 서민기: 약속에 안 나온 건 어떻게 알아?
이미영: 오나 안 오나 볼라구 맞은 편 카페에서 지키고 있었지 뭐.... <해피 엔더, 영화>
ㄴ. 양호: 1교시 영어, 2교시 국어, 3,4교시는 체육입니다. 사모님한테 체육복 꼭 챙겨달라고 하십시오.
복만: 아~ 귀찮어. 그냥 빤스 입고 뛰지 뭐.. <2008코끼리, 02회>

(10ㄱ)은 약속에 안 나온 것을 맞은편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0ㄴ)은 화자인 '복만' 스스로가 빤스를 입고 뛰는 사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 뭐' 구문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반응을 보일 때, 또는 담화 맥락에 존재하는 상황이나 전제된 상황에 대해 반응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지 뭐' 구문은 담화에서 화제를 처음 도입하는 발화가 아니라, 이미 도입된 화제에 대해 언급하는 후행 발화에 쓰인다. 하지만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11) ㄱ. 아영: 이번 주말 뭐해요?
시광: 별다른 거 없지 뭐.. <온달 왕자들, 98회>
ㄴ. 정숙: 자식이란 것들도 그래. 지 에미 알길 우습게 알어. 매일 화만 내고 시뜩거리기나 하고.
숙희: 자식들 머리 크면 다 그렇지 뭐. <비단향꽃무, 2회>
ㄷ. 준석: 우리가 선물 받은 피잔데 아줌마도 같이 먹어요.

안나: 어린이들, 술 먹은 다음 날은 이런 게 넘어 가지 않아.
윤석: 그래도 아줌마하고 같이 먹을 라고 참고 놔둔 건데.
안나: (보고 선심쓰듯) 그럼 한 쪽만 먹어 보지 뭐.

<환상의 커플, 6회>

ㄹ. [달고 유나 눈 앞에 뱀(장난감) 집어던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음.]
달고: (혼자 가며) 그럴 줄 알았다, 지가 그렇지 뭐..(하는데)

<닥터 깽, 6회>

(11ㄱ~ㄷ)을 보면 모두 담화에서 이미 도입된 화제에 대해 언급하는 후행 발화이다. 선행 발화나 기존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화자가 '-지 뭐' 구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11ㄱ)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경우이고, (11ㄴ)은 상대방이 자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데 화자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경우이다. (11ㄷ)은 상대방이 같이 먹자고 하는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는 경우이다. (11ㄹ)은 선행 발화자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장난감 뱀을 던졌는데 기대와 달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음'이라는 담화 상의 전제적 상황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혼잣말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 뭐'는 담화에서 후행 발화로서 대개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므로, 감탄사 '그래', 부사 '그럼' 등과 자주 공기하여 나타난다. 용례는 (12)와 같다.

(12) ㄱ. 유경: 강남백화점 옆에 유명한 레스토랑 있거든, 거기서 모이기로 했어.
미영: (호기롭게)그래, 나가지 뭐. <두번째 프로포즈, 1-16회>

ㄴ. 진숙: (전화) 잠깐만요, 사장님. (집 전화 받고) 그 아줌마 이사 갔대는데, 어디루 이사갔는지 아는 사람두 없대.
인기: 그럼 할 수 없지 뭐. <욕망의 불꽃,29회>

ㄷ. 고운: 네. 그런데 지금 사장님 와 계셔서 대화중이세요.
지애: 아... 그래? 그럼 좀 기다리지 뭐. (의자에 털썩 앉고)

<내조의 여왕, 14회>

(12ㄱ)은 감탄사 ‘그래’와 공기한 경우이고, (12ㄴ)은 부사 ‘그럼’과 공기한 용례이며, (12ㄷ)은 ‘그래’와 ‘그럼’ 둘 다 공기한 용례이다.

‘-지 뭐’의 분류기준은 말뭉치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지 뭐’의 용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명제와 관련된 ‘-지 뭐’와 행위와 관련된 ‘-지 뭐’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용법은 담화 상 이미 존재하는 선행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와 관련하여, 즉 사실 측면에서 명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를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례는 (13)과 같다.

(13) ㄱ. (보석들을 확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린 상황)
만수: 어쩌다 그렇게 됐냐?
수정: 언제든 닥칠 일이었지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밀린 월급은 받아 내야 하는데. (한숨) <칼잡이 오수정, 12회>
ㄴ. (엄마에게 아버지한테 막내삼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허락받은 사실을 말함)
나영: 그래? (웃으며) 잘 됐네. (돌아서 일하는 나영).
민재: 엄마, 난 사고 친 적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나영: (돌아보며) 그래, 경험두 쌓고 좋지 뭐. <욕망의 불꽃, 13회>
ㄷ. 동탁: 현지 가는데 인사라도 하지.
엄지: (OL) 불편해서 싫어. 엄마가 잘 보냈겠지 뭐.
<2009 외인구단, 13회>

두 번째 용법은 사태/행위의 수행과 관련하여, 즉 행위 측면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를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례는 (14)와 같다.

(14) ㄱ. 병구모: (금방 낄낄거리며 간다) 아니 갈려면 꽃놀이를 가지 이 좋은 날 왜 찜질방이야...?

원희: 꽃놀이도 가지 뭐... <행복한 여자, 31회>

ㄴ. 정은: 어딘지 알겠지? 그럼 이따 극장앞에서 만날래?

경민E: 어 그래, 그러지 뭐... <옥탑방고양이, 05회>

ㄷ. 설칠: 오늘 저녁 시간되니?

어수선: 바쁘지만 누나가 정 그렇게 나 보고 싶다면 시간 내야지 뭐. 난 누나한테 약하잖아. <소문난 칠공주, 01-80회>

이와 같이 '-지 뭐' 구문은 의미상 크게 두 부류로 나뉨을 확인할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지 뭐' 구문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분류에 따라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는 주로 화자의 인식과 관련되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태도 내지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먼저 '-지 뭐$_1$'의 문장 유형, 선행 용언, 높임 표현, 시제 등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3.1 '-지 뭐$_1$'의 통사적 특성

'-지 뭐$_1$'은 명제에 대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어 주로 평서문으로 나타난다.

(15) ㄱ. 하익현: 장과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길: 티도 안 내지 뭐... <하얀거탑, 16회>

(15)은 평서문의 용례이다. (15)에서는 상대방이 타인의 반응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화자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평서문을 발화하고 있다. '-지 뭐$_1$'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므로 평서문의 빈도가 가장 높다.[9)]

'-지 뭐$_1$' 앞에 결합하는 선행 용언을 살펴보면 별다른 제약이 없는 듯하다. 선행 용언으로 형용사, 동사, 계사 '-이-' 모두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관용표현과 결합한 경우도 있다.

---

9) 아래 용례 '-지 뭐' 구문 뒤에 느낌표를 붙여 화자의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문으로 볼 수 있으나 드라마 말뭉치의 특성상 화자의 강한 느낌의 어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감탄문으로 보지 않고 평서문에 포함시킨다.
ㄱ. 난희: (커피 준비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어어, 잘렸어 나!
기조: (놀라는, 보는)
난희: 백화점으로선 그동안두 많이 봐 준 셈이지 뭐! (생략...)
<내 마음을 뺏어라, 10회>

(16) ㄱ. 사내: 약국이야 맨날 똑같지 뭐. <타짜, 03회>
ㄴ. 혜진: (웃으며) 애들 때매 살지 뭐. (웃고) 근데 웬 가방이 저렇게 크니. 가방 보니까 잠깐 다니러 온 게 아니네.
<달콤한 인생, 09회>
ㄷ. 주정: 이게 더 현실적이지 뭐. <가문의 영광, 34회>
ㄹ. 진상: 다들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이지 뭐. <종합병원2, 4회>

(16ㄱ)은 '-지 뭐'가 형용사 '똑같다'와 결합한 것인데, '-지 뭐'는 화자가 명제를 평가하는 경우 형용사와 자주 결합한다. (16ㄴ)에서는 동사 '살다'와 결합한 것이고, 화자가 명제를 인정하는 경우 동사와 자주 결합한다. (16ㄷ)에서는 계사 '-이-'와 결합한 것이고, (16ㄹ)에서는 '죽을 맛이다'라는 관용표현과 결합하였다. 화자가 명제를 판단하는 경우 계사 '-이-' 및 관용표현과 자주 결합한다.

'-지 뭐$_1$'가 주체 높임의 '-시-'와 통합하는 용례는 (17)과 같다.

(17) ㄱ. 은주: 할머니 뭐라세요?
기정: 우리 빨리 하구..기풍이 헤어지라구
은주: (한편 착찹..) 어머님 아버님 별말 없으시구요
기정: 그냥 충격이시지 뭐.. <보고 또 보고 131-140회>
ㄴ. 대성: 외삼촌이 기분이 많이 착찹 하신가봐요.
진분: 순정이 걱정 때문에 그러시지 뭐. 끙.... <황금마차, 172회>

(17)을 보면 주체 높임의 '-시'와 통합하는 경우는 주로 3인칭, 즉 주체가 화자나 청자가 아니라 높일 만한 대상인 제3자일 때이다. 즉 제3자의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 뭐$_1$'의 높임 표현은 높임의 '-요'가 통합된 '-지요 뭐'인데, '-지요'의 준말인 '-죠'를 써서 '-죠 뭐'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죠 뭐'와 높임의 '-시-'가 통합하여 '-시죠 뭐'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높임의 '-

요’가 ‘뭐’ 뒤에 통합하여 ‘-지 뭐요’로 나타난 용례도 있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다.

(18) ㄱ. [회장님께서 내일 같이 조찬을 하자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음]
박일도: (오상규을 가리키며) 이 친구는...
태성: 아. 작년에 그만두셨다고 했죠?
오상규: 저는 갈 필요 없*지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내 여자, 09회>
ㄴ. 유정: 어떡하죠? 어머님이 불편하시겠어요.
강석: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죠 뭐.* <황금마차, 66회>
ㄷ. 강석: 어머니는 어쩌구 계세요?
유정: 안좋으*시죠 뭐.* <황금마차, 126회>
ㄹ. 미선: 괜찮아요. (손보며) 근데.. 서류 가질러 가신다더니 왜 빈손이세요?
김원장: 이걸 어쩌나.. 내가 준비해 논 서류를 학원 금고에 두구 왔*지 뭐요.* <몽땅 내사랑, 103회>

(18ㄱ~ㄷ)은 각각 ‘-지 뭐$_1$’의 높임표현 ‘-지요 뭐’, ‘-죠 뭐’, ‘-시죠 뭐’의 용례이다. 이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높임 표현으로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 (18ㄹ)은 ‘-지 뭐요’의 용례인데 형식상 ‘-지 뭐$_1$’의 높임 표현 같지만, 의미상 ‘서류를 학원에 두고 온 사실’에 대한 당황함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지 뭐예요’와 의미상 가깝다.

다음은 ‘-지 뭐$_1$’의 시제 제약을 살펴보겠다.

(19) ㄱ. 기모: (애써 담담하게 웃으며) 많이 늙었지 뭐.
<비밀의 정원, 1-24회>
ㄴ. 이슬: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빌었지 뭐. <바람피기좋은날, 영화>
ㄷ. 홍영감: 꽃집에 갔겠지 뭐. <열아홉순정, 80-167회>
ㄹ. 은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햇빛속으로, 11회>
ㅁ. 윤후: 됐어, 약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뭐... <열아홉순정, 80-167회>

(19)의 예문을 살펴보면 '-지 뭐$_1$'은 별다른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19ㄱ)와 (19ㄴ)은 '-지 뭐'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통합된 용례이다. '-었-'과 통합될 경우 주로 상대방에게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과거 행위 수행을 한 사실을 얘기할 때 사용한다. (19ㄱ)은 화자가 사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용례이고, (19ㄴ)은 화자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수행했는지 알려주는 용례이다. (19ㄷ)은 선어말어미 '-었-'과 '-겠-'이 결합한 '-었겠-'과 통합된 용례이다. '-었겠-'과 통합될 경우 주로 과거의 사실을 추측할 때 사용한다. (19ㄹ)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Ø'로 실현되는 용례이다. (19ㅁ)은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통합된 용례이다. '-겠-'과 통합될 경우 주로 미래 사실을 추측할 때 사용한다. '-지 뭐$_1$'은 시제 제약을 받지 않지만 시간 표현에 따라 나타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었겠-'은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겠-'은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 외 '-나 보-'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제3자에 대해 추측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20) ㄱ. 종업원1: 지가 아직 꽃띤 줄 아나 보지 뭐.<돌아와요 순애씨, 10회>
ㄴ. 이씨: 누가 우리 오팀장 흉보나 보지 뭐. <칼잡이 오수정, 2회>
ㄷ. 명자: 니가 싫증났나 보지 뭐. <달콤한 인생, 14회>
ㄷ′. 니가 싫증났겠지 뭐.

(20ㄱ~ㄷ)은 '-나 보-'와 공기한 용례이다. '-나 보-'은 제3자의 과거나 현재의 인식이나 행위를 추측할 때 사용되는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20ㄷ)의 용례를 (20ㄷ′)과 같이 '-었겠-'과 통합한 용례로 바꿔 살펴보면, 두 용례는 모두 제3자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20ㄷ)의 '-나 보-'보다 (20ㄷ′)에 나타난 '-었겠-'의 용례가 화자가 추측한 사실에 대해 확신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듯하다.

3.2 '-지 뭐$_1$'의 의미적 특성

김문기·김형복(2018: 54)에서 '-지 뭐'가 주로 '화자의 주관적·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지 뭐' 구문의 용례들을 검토한 결과 본고에서는 '-지 뭐'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본고에서 '-지 뭐$_1$'의 의미를 기술함에 있어서 종결어미 '-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1. '대수롭지 않게 여김'

상대방이 명제를 높게 평가하여 걱정을 드러날 때, 화자가 상대방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줄 경우, '-지 뭐$_1$'을 사용한다. 이때의 '-지 뭐$_1$'은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준다.

(21) ㄱ. 유진: 너 거지같애. 며칠을 샌거야?
현규: 집 나온지는 열흘 됐고, 열흘 중에 칠일은 밤 꼴딱샜고, (울컥한) 아이씨, 조소장 진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지가 야근이면 난 철야해야 되고, 지가 철야하면 난 주말도 없다고.
유진: 니네 일은 원래 이렇게 다 힘들어?
현규: 풀로 샐 땐 다 그렇지 뭐. <결혼 못하는 남자, 5회>

ㄱ′. **풀로 샐 땐 다 그렇지.**

ㄴ. 승준: (수혁을 보며 놀라..)뭐야?? 너 행불처리해 달라고 안 했어?? 회장님 보시면 어쩌려구??
수혁: 들키면 들키는거지 뭐...삼촌 안에 있지?? (걸어들어간다)
<파리의 여인, 7회>

ㄴ′. **들키면 들키는거지** ...삼촌 안에 있지?? (걸어들어간다)

(21ㄱ, ㄴ)은 '-지 뭐$_1$'으로 끝나는 용례이고, (21ㄱ′, ㄴ′)은 '-지 뭐$_1$'을 종결어미 '-지'로 바꿔 제시한 용례이다. (21ㄱ)의 '현규'는 '-지 뭐' 구문을 사용하여 밤을 새는 일이 힘든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걱정하는 '유진'을 안심시키고자 한다. (21ㄴ)의 '수혁'은 '-지 뭐$_1$' 구문을 사용하여, 갑자기 회장님과 마주칠까 봐 걱정하는 '승준'에게 들켜도 괜찮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21ㄱ, ㄴ)에서는 모두 '-지 뭐$_1$' 구문을 사용하여 화자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를 드러내는 용례이다. '뭐'를 사용하지 않은 (21ㄱ′, ㄴ′)의 용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걱정하여 '원래부터 힘든 일이냐?', '회장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냐?'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화자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불만/불평을 토로할 때, 화자가 다른 견해를 가지거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지 뭐$_1$'을 사용하면 선행 발화한 명제나 사태에 대한 반박/부정이 약화하게 실현되고, 이때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김'이다.

(22) ㄱ. 미연: 말두 안돼! 진짜야? 너 그런데 왜 이렇게 멀쩡해?!
사빈: 혼자 있을 때만 운다 펑펑.
미연: (기막혀서) 아니! 너 연수 끝나구 오면 바루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같이 병원두 내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사람?
사빈: 그럴 수두 있지 뭐. <초대, 1-18회>
ㄱ′. **그럴 수도 있지.**
ㄴ. 최권: 화면이랑 앵글이 좀 구리지 않아? 무슨 80년대 읍내극장에 나오는 광고 삘이야.
신구: (찌릿 최권 째리는)
지우: (툭치며) 왜. 괜찮은데
수현: 지역 케이블 광고가 다 이렇지 뭐. <김치 치즈 스말일, 57회>
ㄴ′. **지역 케이블 광고가 다 이렇지.**

(22ㄱ, ㄴ)은 '-지 뭐$_1$'로 끝나는 용례이고, (22ㄱ′, ㄴ′)은 '-지 뭐$_1$'를 종결어미 '-지'로 바꿔 제시한 용례이다. (22ㄱ)은 '미연'이 '사빈'의 약혼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사빈'이 '미연'의 발화를 반박/부정하는 것이다. '-지 뭐'가 사용된 (22ㄱ)은 종결어미 '-지'만 나타나는 (22ㄱ′)에 비해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박/부정의 뉘앙스가 다소 약화되는 듯하다. 또한 (22ㄱ)에서는 화자가 '-지 뭐'를 사용함으로써,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가 함께 나타난다. (22ㄴ)은 '최권'이 광고 화면이 드러내는 효과에 불평을 토로하는 선행 발화 내용을 '수현'이 반박/부정을 하는 것이다. (22ㄴ′)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반박/부정을 나타내는데, (22ㄴ)은 (22ㄴ′)에 비해 좀 덜 직설적이고 반박/부정이 어느 정도 약화된 듯하다.

'-지 뭐$_1$'은 '~면 되지 뭐', '~말지 뭐'와 같은 구성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를 더 강조한다.

(23) ㄱ. 석현: 너희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해인: ..말씀드려야 돼?
석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이사로 계시니까.
해인: 말 안 했어. 담당자들끼리 처리하면 되지 뭐.
<별난 남자 별난 여자, 100회>

ㄴ. 미경 : (한숨쉬며)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그 흔한 대학 졸업장 하나 안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려구 저러는지...
복만: 여보 걱정마. 내가 건물 하나 주면 되지 뭐...
<2008코끼리, 29회>

ㄷ. 형주: 어제 엄마들끼리 만나서 어학연수 스케줄 잡은거 같던데. 들었냐?
태훈: 어.
형주: 보충 수업 때문에 스케쥴이 좀 삐그덕거리겠던데?
태훈: 안되면 말지 뭐. <학교2, 11회>

ㄹ. 기준: 무, 물 있어요? (하고 냉장고로 가 물 꺼내다 냉장고 위에 놓

인 고양이 기념품 보는) 샀어요? 언제?
승아: (살짝 당황) 어제요. 심심해서 잠깐 나갔어요.
기준: 갈 거면 같이 가죠. 어디 갔었는데요.
승아: 그만하고 잘래요. 못 외움 말지 뭐. 가요. 졸려.

<온에어, 8회>

(23ㄱ, ㄴ)은 '~면 되지 뭐'의 용례이다. '~면 되지 뭐'로써 상대방이 신경 쓰거나 걱정할 경우 본인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신경 쓰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할 때 사용한다. (23ㄷ, ㄹ)은 '~ 말지 뭐'의 용례이다. '~ 말지 뭐'는 화자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의미를 나타날 때 사용한다.

3.2.2. '의심할 여지가 없음'

상대방이 어떤 명제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예측 가능한 사실을 확신을 갖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 뭐$_1$'을 사용하여 대답하면 화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강조되는데, 이 경우 '의심할 여지가 없음'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난다.

(24) ㄱ. 현찰: 그집도 난린가봐.
우미: 뭐땜에?
현찰: 모든 원인이 당신이지 뭐. 당신이 잔다르크처럼 나를 따르라 한 뒤로 온집안 난리다. 이상이 집에 와 있대.

<수상한 삼형제, 55회>

ㄱ′. **모든 원인이 당신이지.** (후략...)
ㄴ. 나영: 어? 원장이네? (승아보고) 승아씨! 우리 만난다고 얘기하고 온 거야?
승아: 아뇨. 얘기하지 말고 오랬잖아요.
금지: (나영의 전화 안 울리자, 이번엔 금지의 전화가 울린다) 어!

나도 원장이네?! 우리 모여서 노는 거 알고 전화하는 거 아니예요?

나영: 받지마 받지마. 뻔해~ 주말에 또 일 시키려는 거지 뭐. 받지마. <몽땅 내 사랑, 15회>

ㄴ′. 받지마 받지마. 뻔해~ **주말에 또 일 시키려는거지.** 받지마.

(24ㄱ)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대답하는 경우의 용례이고 (24ㄴ)은 화자 자신이 예측 가능한 사실을 대답하는 경우의 용례이다. (24ㄱ)에서는 '우미'가 왜 난리 났는지 이유를 물어보자 '현찰'은 상대방 때문이라고 확신을 갖고 대답하는데, 이때 '의심할 여지가 없음'의 태도가 드러난다. (24ㄴ)에서 '원장'이 전화한 의도를 예측하는데, '나영'은 예전 경험으로 추측하여 원장이 주말에 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다. (24ㄱ′, ㄴ′)은 종결어미 '-지'로 화자의 '이미 앎'의 의미를 포함하여 기술하는 데 비해, (24ㄱ, ㄴ)은 '-지 뭐' 구문을 사용하여 '이미 앎'의 의미도 나타내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의 화자의 태도도 곁들여서 나타낸다.

말뭉치의 용례를 살펴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음'의 태도를 나타낼 때, 관용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10)]

(25) ㄱ. 인영: 넌 이 와중에 은성이가 빚 독촉 받을까봐 걱정되니?

승미: (미안한 듯, 늘 진심 반 상황 모면 반이다) 나하고 관계 알게 돼서 오빠 집에서도 나오게 됐으니까...

인영: (승미 쪽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설명 들은 상황) 그러니까 왜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내냐구. 자업자득이지 뭐. <찬란한 유산, 22회>

ㄴ. 윤후: 내가 누구냐? 명색이 UT의 기획실장인데 그깟거야 식은 죽 먹기지 뭐. <열아홉순정, 80-167회>

(25ㄱ)은 사자성어와 결합한 용례이고, (25ㄴ)은 관용표현과 결합한 용례이

10) 제시한 용례 외 '안 봐도 비디오다', '오십보백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동병상련'등의 관용표현이 '-지 뭐'와 같이 결합한 경우도 관찰되었다.

다. 사자성어와 관용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화자가 상황을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데, 이때 '-지 뭐'는 화자의 발화에 확신을 갖는 것과 더불어 '의심할 여지가 없음'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3.2.3. '심드렁함, 짜증/귀찮음'

상대방이 개인 문제나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화자가 알려주기 싫거나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경우 '-지 뭐$_1$' 구문으로 대답하여 '심드렁함'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26) ㄱ. 재민: (안는) 어이구 우리 딸, 잘 있었어? (지수 보며) 당신두 잘지냈어?
지수: 늘 그렇지 뭐.
재민: (웃고) 건강 좋아 보여 다행이다. <그 여자, 1-20회>
ㄱ′. **늘 그렇지**
ㄴ. 홍: (보다가 쭉 웃으며)꽃구경 했어?
지수: 네 아버님..(경민 같이 네에)
준표: 정말 꽃 안보시고 그냥 가시겠어요?
홍: 꽃이 꽃이지 뭐..(자동차로 돌아서는) <내 남자의 여자, 12회>
ㄴ′. **꽃이 꽃이지.**

(26ㄱ)은 상대방이 화자의 안부를 물어보는 상황이다. '-지 뭐'가 사용된 (26ㄱ)은 (26ㄱ′)에 비해 질문에 대한 '심드렁함'의 태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26ㄴ)은 사람들이 '홍'에게 꽃구경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다. '홍'은 '-지 뭐' 구문을 사용하여, 꽃구경에 대한 '심드렁함'의 태도를 강조한다. 반면 (26ㄴ′)은 그러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난다.

과거 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선행 발화를 메타언어적으로 부정한 수사의문문과 함께 '-지 뭐$_1$' 구문을 사용하면 화자의 부정적 심리

태도, 즉 '짜증/귀찮음'이 더욱 두드러진다.

(27) ㄱ. 명혜: (쪼르르 달려가) 사부인이 뭐라시디?
윤정: **뭘 뭐래?** 다시 합치라는 얘기지 뭐.
<열아홉 순정, 1-30회 32-79회>
ㄱ′. **뭘 뭐래? 다시 합치라는 얘기지.**
ㄱ″. *다시 합치라는 얘기지 뭐.*
ㄴ. 옥금: (안으로 들어가는 혜숙의 옷자락을 잡으며) 어떻게 된 거야?
혜숙: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선생님 설사병땜에 공항 가는 길에 화장실 찾아다니느라 비행기 놓쳤지 뭐.
옥금: (기가 막혀서) 예에?
혜숙: 으이그 개도 안 물어갈 내 팔자! 내 주제에 신혼여행은 무슨... (안으로 마루로 올라가면) <열아홉 순정, 80-167회>
ㄴ′.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선생님 설사병땜에 공항 가는 길에 화장실 찾아다니느라 비행기 놓쳤지.**
ㄴ″. 선생님 설사병땜에 공항 가는 길에 화장실 찾아다니느라 비행기 놓쳤지.

(27ㄱ, ㄴ)은 메타언어적 부정을 사용한 수사의문문 뒤에 '-지 뭐$_1$' 구문을 사용한 경우이고, (27ㄱ′, ㄴ′)은 '-지 뭐' 구문을 종결어미 '-지'로 바꿔 제시한 것이며, (27ㄱ″, ㄴ″)은 수사의문문을 생략하여 '-지 뭐$_1$' 구문만 사용한 것이다. (27ㄱ, ㄴ)에서 화자는 '뭘 뭐래?',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의 수사의문문으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불쾌함을 나타내고 '-지 뭐' 구문으로 질문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짜증/귀찮음'의 부정적 심리적 태도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27ㄱ′, ㄴ′)의 '-지 뭐' 구문의 경우 '다시 합치라는 것이다'의 청자 '기지 가정'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는 (27ㄱ, ㄴ)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다. (27ㄱ′, 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 뭐'가 메타언어적 부정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과 공기하여 나타날 때만, 화자의 '짜증/귀찮음'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4 '어찌할 수 없음'

상대방이 제안이나 부탁을 거절하거나 화자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경우 '-지 뭐'를 사용하면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난다. 화자는 '-지 뭐'를 사용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체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28) ㄱ. 말자: 그럼... 나랑 시간 때우다 같이 들어가자. 7시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
하늘: 오늘은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데... 죄송해요.
말자: 할 수 없지 뭐... <어느 멋진날, 12>
ㄱ′. **할 수 없지...**
ㄴ. 우인: (망연히) 저도 누나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매형: (멸치똥을 빼서 옆에 멸치를 가지런히 놓으며 한숨을 쉰다.) 다 내 탓이지 뭐. <순애보, 영화>
ㄴ′. **다 내 탓이지**

(28ㄱ′, ㄴ′)에 비해 (28ㄱ)은 '하늘'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데, '말자'는 '-지 뭐$_1$' 구문을 사용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고 있다. (28ㄴ)의 '매형'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대해 자신을 탓하면서 씁쓸한 심정이나 '어찌할 수 없음'의 태도를 드러낸다.

4.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는 사태/행위의 수행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드러낸다. 먼저 '-지 뭐$_2$'의 문장 유형, 선행 용언, 높임 표현, 시제 등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4.1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

'-지 뭐$_2$'는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장 유형의 구분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9) ㄱ. 대구: 저녁 때 이 앞 통닭집으로 와요. 시원한 생맥주랑 닭 한 마리 살게요.
메리: (의심의 눈초리)거길 하우스 삼아 또 판을 벌일껀가?
대구: 허! 싫음 오지 말구. 나 혼자 먹지 뭐.(나간다)
<메리대구 공방전, 4회>

ㄴ. 준혁: 그런데 이사님. 뇌물 사건 때문에 상의드릴 게 좀...
홍식: 어, 그 문제? 일단은 뭐 지켜보지 뭐. (시계 보고 일어나며) 아이구. 사장님하고 임원진 회의 있는데 깜박했네.
<내조의 여왕, 15회>

ㄷ. 시은: 구성안 너무 재밌지 않어? 우리 코너만 튈 것 같아요.
현숙: 코너 키워서 우리가 아예 프로 하나를 만들지 뭐.
<태양의 여자, 19회>

(29ㄱ)은 평서문의 용례이고, (29ㄴ)은 명령문의 용례이며, (29ㄴ)은 청유문의 용례이다. (29ㄱ)에서는 '메리'가 '대구'의 요청에 의심을 표하자, 이에 대해 동작주인 '대구'가 혼자 먹겠다는 행위 수행을 승인하면서 평서문으로 전달하였다. (29ㄴ)에서는 '준혁'이 상의드릴 것이 있다고 발화하였

고, 이에 대해 ‘홍식’은 지켜보자고 동작주인 ‘준혁’에게 명령문으로 발화하고 있다. 지켜보는 주체가 화자와 청자 둘 다 포함하는 청유문일 가능성도 있다. (29ㄷ)의 ‘현숙’은 코너가 잘 될 것 같다는 ‘시은’의 말을 듣고, 같이 프로 하나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청유문으로 발화하고 있다.

(30) ㄱ. 상두: 내가 가지 뭐. 내가 가께. 넌 거기 있어.
<상두야 학교가자, 3회>
ㄴ. 봉순: 여보. 궁금하대잖아. 보여주지 뭐. <내조의 여왕, 9회 >

‘-지 뭐$_2$’는 행동에 대한 화자의 승인이나 명령, 요청을 나타내므로 결합하는 선행 용언을 살펴보면 동사만 결합할 수 있다. (30ㄱ)은 본용언 ‘가다’와 결합한 용례이고 (30ㄴ)에서는 보조 용언 ‘주다’와 결합한 용례이다. ‘-지 뭐$_2$’는 ‘지 뭐$_1$’에 비해 선행 용언 결합에 제약이 심한 편이다.

(31) ㄱ. 먼저 떠나시지 뭐. (김문기·김형복2018:47)
ㄴ. 부실E: 우리 시 중점사업이니 만큼,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을 좀 *하시지 뭐.* 내가 청사 이전이다, 간담회다, 정신이 없어요 아주.
미래: (커피를 어디다 놔야 할지... 조국이 부실 책상 앞에 서 있는지라...)
조국: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은 업무 파악 중이라서요.<시티홀, 1회>

김문기·김형복(2018: 47)에 따르면 (31ㄱ)은 ‘-지’에 ‘-시-’가 결합되면 ‘뭐’의 안 높임의 의미와 충돌되어 높임의 의미보다 ‘조롱, 가벼이 여김, 업신여김’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한다. (31ㄴ)의 용례를 살펴보면 주체 높임 대상인 ‘부사장님’과 ‘조권’은 동일 인물이다. ‘부실’이 ‘조국’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는 경우인데, 담화 맥락상 화자가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것 같으나 오히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의미가 드러난다. 이 경우는 Culpeper(1996:356)에서 제시한 불손 전략 중 ‘풍자 혹은 거짓 공손 전략(Sarcasm or mock politeness)’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자 혹은 거짓 공손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공손의 형태를 취하나 사실상 상대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전략이다.[11] (31)에서 '-시-'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듯하나, 사실은 불손함을 드러낸다.

(32) ㄱ. [병도는 동철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함]
동희: (나서며) 무슨 얘긴지 저랑 먼저 하시면 안될까요. 얘는 지금 배달을 가야되는데...
병도: 아 바쁘시면 좀 기다리*지요 뭐.* (어색하게 웃어보인다)
<달팽이, 3회>
ㄴ. [정마담이 호구 옷에 쥬스를 묻게 함]
정마담: 죄송해서 어떡해요?
호구: (히야까시하며) 비싼건데, 버리*죠 뭐.* <타짜, 영화>
ㄷ. 영식: (전화에서) 좀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영: (전화) 점심 어때요. 나하고 점심하*시죠 뭐.*
<욕망의 불꽃, 27회>

'-지 뭐$_2$'의 높임 표현은 '-지 뭐$_1$'과 차이 없이 '-지요 뭐', '-죠 뭐', '-시죠 뭐'로 나타난다. (32ㄱ)은 '-지요 뭐'의 용례이고, (32ㄴ)은 '-죠 뭐'의 용례이며 (32ㄷ)은 '-시죠 뭐'의 용례이다.

'-지 뭐$_2$'의 시제 제약을 살펴보겠다.

(33) ㄱ. 아내: 어 오빠, 우리 이 집 공개하고 잡지 인터뷰했잖아. 이 집 설계하신 분 프로필 보내달라고 그러던데.
남편: 바로 부탁드리지 뭐. <결혼 못하는 남자, 1회>
ㄱ′. **바로 부탁드렸지 뭐.**
ㄴ. 미현(E): 타이틀...몇 가지 만들어봤는데...이따 들어보러 올래요?
승희: ***나중에***...사무실에서 듣지 뭐.

11) 이 부분의 내용은 유연(2011:19)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현(E): 그러지 말고 일루 와요. 내가 한 잔 살께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3회>

ㄴ′. **나중에... 사무실에서 듣겠지 뭐.**

‘-지 뭐$_2$’는 주로 현재시제와 미래시제 로 나타난다. (33ㄱ)은 현재시제로 화자가 행위 수행을 승인하는 용례이고 (33ㄴ)은 미래시제로 미래에 어떤 행위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용례이다. (33ㄱ′)을 살펴보면 ‘-지 뭐$_2$’가 과거시제 ‘-었-’과 통합한다면 화자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수행했는지 알려주는 용법으로서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이 된다. 즉 ‘-지 뭐$_2$’는 과거시제로 쓰이지 못한다.

한편 미래 사태/행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지 뭐$_2$’는 미래의 사태/행위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33ㄴ′)을 살펴보면 ‘-겠-’과 통합할 경우, 어떤 사태나 명제에 대해 화자가 추측하는 용법으로서 역시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이 된다. 즉 ‘-지 뭐$_2$’는 미래의 사태/행위를 나타낼 때 ‘-겠-’과 통합하지 않고 동사 어간과 직접 통합한다.

‘-지 뭐$_1$’과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문장 유형, 선행 용언, 높임 표현, 시제 등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지 뭐$_1$’은 문장 유형은 평서문으로만 나타내고 그 외의 특별한 통사적 제약은 받지 않는 데 비해, ‘-지 뭐$_2$’는 상대적으로 통사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표 4> ‘-지 뭐$_1$’과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

문장유형	평서문		○	○
	청유문		×	○
	명령문		×	○
	의문문		×	×
선행용언	형용사		○	×
	동사		○	○
	'-이-'		○	×
높임표현	'-시-'와 통합		○	×
	'요'와 통합	지요 뭐/죠 뭐/	○	○
		지 뭐요	×	×
시제	과거시제		○	×
	현재시제(Ø)		○	○
	미래시제		○	○
	'-었-'와 통합		○	×
	'-겠-'와 통합		○	×

4.2 '-지 뭐$_2$'의 의미적 특성

'-지 뭐$_2$'는 사태/행위와 관련되는데,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지 뭐$_2$'의 의미를 기술함에 있어서, 의미상 유사한 화행 표현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2.1. 주체가 화자인 경우: 행위 승인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의 용법을 살펴보면 '-지 뭐$_2$' 구문은 행위의 주체가 화자인 경우, 주로 화자가 어떤 행위를 승인할 때 사용되는데, 그 용법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드러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도 다르다. 화자가 행위를 승인할 때, 행위를 약속하거나 행위 수행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을게'[12] 구문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행위의 주체가 화자인 경우 주로 어떤 행위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깊은 사유를 거치지 않고 행위 수행을 승인한다고 말할 때 사용된다. 이때 화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고 있다.

(34) ㄱ. 효주: (대충 둘러보며) 그럼 준비 다 됐나? (하다가) 참! 샴페인!
샴페인이 없다.
경택: 아, 없으믄 그냥 있는 술 마시믄 되았제.. 쩌기 술 많구만...
효주: 안돼 ! 15년만에 챙겨먹는 생일인데 샴페인을 빼놓자구?
말자: 그래요... 생일파티는 샴페인 터트리는 맛인데...
건: 가 사오지 뭐... 갔다올께... <어느 멋진 날, 16회>
ㄱ′. **가 사올게... 갔다올께...**

(34ㄱ)은 화자가 깊은 사유를 거치지 않고 행위 수행을 승인한 용례이고, (34ㄱ′)은 '-지 뭐$_2$'를 '-을게'로 바꿔 제시한 용례이다. (34ㄱ)에서는 친구들이 생일파티에 샴페인이 있어야 할지 논쟁하던 중에, '건'이 깊이 숙고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사온다는 행위의 수행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때 '약속'의 화행을 나타내는 (34ㄱ′)에 비해 화자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1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을게'에 대한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을게: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태도를 곁들여서 이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표현한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심리 태도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화자가 제안이나 요청을 받아들여 행위 수행을 승인할 때도 드러난다.

(35) ㄱ. 주미: 오빠, 우리 회장님 오늘 뵐까?
세인: (의아한 표정으로 보는데)
주미: 회장님께서 나한테 시간 빼라고 하셨다면서? 회사일로 드릴 말씀도 좀 있구, 오늘 뵙자고 하자. 퇴근하고 아무 일 없지?
세인: 그렇긴 한데...전화 한번 드려보지 뭐...<우리집 여자들, 21회>
ㄱ′. **그렇게 한데... 전화 한번 드려볼게...**
ㄴ. 다소: 실내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아주세요.
태웅: 밖에 나가서 피우지 뭐.
다소: 그럼... 된거 같아요. <수호천사, 1-16회>
ㄴ′. **밖에 나가서 피울게.**

(35ㄱ)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제안하여 화자가 행위를 승인한 용례이고, (35ㄴ)은 상대방이 화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례이다. (35ㄱ)에서는 오늘 회장님을 뵈러 가자는 '주미'의 제안을 듣고 '세인'이 전화를 드려보겠다고 행위를 승인한 것이다. (35ㄱ′)의 발화는 전화하겠다는 행위를 약속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35ㄱ)은 약속 화행의 의미가 약화되어 표현된 듯하다. (35ㄴ)은 '다소'가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태웅'에게 요청하는데, '태웅'은 밖에 나가서 피우겠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35ㄴ)은 (35ㄴ′)에 비해 상대방의 요청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태도가 강조된다.

(36) ㄱ. 선정: 너 가고 나면 나 어떡하냐. 보고 싶어서.
복실: 미국에 놀러 와.
선정: 진짜? 진짜로?

복실: 응! 내가 거짓말 하는 거 봤냐?
선정: 에이...비행기표가 얼마나 비싼데.
복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보내주지 뭐.

<어느 별에서 왔니,10회>

ㄱ′.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보내줄게.**

ㄴ. 을동: 이 양반 멀미가 심해서 KTX도 잘 못타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신구: (신났다) 까짓 거 타보지 뭐. 약 먹구 한 열 시간 푹 자면 되는거 아냐.. <2007-2008 김치 치즈 스마일, 104회>

ㄴ′. **(신났다) 까짓 거 타볼게**. 약 먹구 한 열 시간 푹 자면 되는거 아냐...

상대방이 명제를 높게 평가하거나 걱정할 경우, 화자가 어떤 행위를 취하겠다고 승인할 때도 '-지 뭐$_2$' 구문이 사용된다. (36ㄱ)은 (36ㄱ′)의 약속문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지 뭐$_2$' 구문을 사용하여 비행기표 값이 비싼 것은 본인한테 별일 아니라는 뉘앙스의 의미를 나타낸다. (36ㄴ)에서는 '신구'가 과연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을동'이 걱정을 표하는데, 이에 대해 '신구'가 한번 타보겠다고 행위를 승인한 것이다. 반면 (36ㄴ′)은 상대방의 걱정보다 비행기를 타보라고 행위를 제안할 때의 후행 발화로 사용하면 더 적절할 듯하다.

실현할 수 없거나 마음에 없는 행위를 당당하게/가볍게 승인하여 상대방에게 반항하거나 농담할 때 '-지 뭐'를 사용하기도 한다.

(37) ㄱ. 아랑: 지금 너 나 무시하니? 내가 하면 못할 거 같아?
세인: (당연) 응. 니 성적은 내 뒤잖아. 나까지는 좀 기초가 되는데 내 뒤부터는 이건 초등학교에서부터 부실했던 애들이야.
아랑: 그럼 초등학교거 부터 다시 공부하지 뭐.
세인: 어..그래라. 그럼 대학은 갈 수 있겠다 환갑쯤에. 노인대학.

<비밀의 교정, 24회>

ㄱ′. **?그럼 초등학교거부터 다시 공부할게**

ㄱ''. *그럼 초등학교거부터 다시 공부하지*

ㄴ. 대구: 다음주 까지 뭔가 길이 나오겠죠. 죽으란 법 있겠수 설마.

메리: .....갑시다. 기분인데 내가 술 한 잔 살께요.

대구: 돈도 없으면서.

메리: 먹고 죽지 뭐. 가요. <메리대구 공방전, 6회>

ㄴ'. **?먹고 죽을게**. 가요

ㄴ''. *먹고 죽지*. 가요

(37ㄱ,ㄴ)은 '-지 뭐$_2$'로 끝나는 용례이고, (37ㄱ',ㄴ')은 '-지 뭐$_2$'를 '-을게'로 바꿔서 제시한 용례이며 (37ㄱ''. ㄴ'')은 종결어미 '-지'로 바꿔 제시한 용례이다. (37ㄱ)에서는 '세인'이 '아랑'을 무시하자 '아랑'이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하겠다며 실현할 수 없는 행위를 가볍게 승인하여 반항한 것이고, (37ㄴ)에서는 '대구'가 '메리'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메리'는 마음에 없는 행위를 승인한다고 가볍게 발화하여 농담을 하였다. (37ㄱ', ㄴ')을 살펴보면 '-지 뭐'는 행위 수행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후행 발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승인하여 농담조의 발화를 하고 있다. (37ㄱ'', ㄴ'')에 비해 '-지 뭐$_2$' 구문은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를 곁들여서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38) ㄱ. 봉선: 술도 파는 곳이라 애들은 입장 금지랜다. 간만에 우리 둘이 외식 하자.

도경: 그래도 그렇지. 애들은 어쩌고.

봉선: 밥 챙겨 놓고 가면 되지. 거기서 미니콘서트도 한다는데 나 너무 보고 싶단 말야. (보채듯) 가자. 응?

도경: (마지못해 빨랫감 내려놓으며) 그래... 공짜라는데 가보지 뭐.

<공주가 돌아왔다, 13회>

ㄱ'. (마지못해 빨랫감 내려놓으면)**그래... 공짜라는데 가볼게.**

ㄴ. 한씨: 너 혹시 성재 생년월일 알고있니?

정림: 글쎄요. 네살이라는거 밖에는 몰라요.
한씨: 니가 언제 한 번 슬쩍 물어볼래?
정림: 왜요? 엄마가 직접 여쭤보지 그러세요?
한씨: ....그래 알았다. 나중에 물어보지 뭐. <인생화보, 111회>

ㄴ′. **그래 알았다. 나중에 물어볼게.**

화자가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경우, 화자가 행위를 승인하는데 이때 화자는 '-지 뭐'를 통해 '어찌할 수 없음'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38ㄱ)에서 '도경'은 아내 '봉선'의 간절한 요청에 같이 나가자고 받아들인 것이다. (38ㄴ)에서는 '한씨'가 '성재'의 생년월일을 물어봐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직접 물어보겠다는 행위를 승인한 것이다. (38ㄱ′,ㄴ′)에 비해, '-지 뭐$_2$' 구문을 사용하면 이 상황에 대해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낸다.

4.2.2. 주체가 화자 이외인 경우: 행위 권고, 승인

'-지 뭐$_2$' 구문에서 행위의 주체가 화자 이외인 경우, 주로 화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어떤 행위를 권고하거나 승인할 때 사용되는데, 용법에 따라 나타내는 심리적 태도도 다르다. 화자의 행위 권고는 명령의 화행과 유사한 뜻을 나타내므로, 명령할 때도 두루 쓰일 수 있는 종결어미 '-지'[13]와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행위의 주체가 청자인 경우 주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어볼 때, 즉 고민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행위를 권고할 때 사용한다. 이때 화자는 사태에 대해 '중요하지 않음'의

1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종결어미'-지'에 대한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지$_{24}$: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인다.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고 있다.

(39) ㄱ. 설칠: 잘 어울려?
명자: 그럼. 이쁘지. 인사 잘하구 와.
설칠: 뭐 사갖고 가야돼?
명자: 과일이나 케익이나 사가지 뭐. <소문난 칠공주, 1-80회>
ㄱ′. **과일이나 케익이나 사가지.**
ㄴ. 윤아: 부장한테 성형수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냐..? 분명히 제대로 찍혔어.. 아.. 회사 다니기 힘드네...
지영: 어쩌겠니.. 상산데.. 니가 그냥 피해야지 뭐..
<올드미스 다이어리, 75회 >
ㄴ′. **어쩌겠니.. 상산데.. 니가 그냥 피해야지..**

(39ㄱ, ㄴ)은 상대방의 질의나 고민에 화자가 행위를 권고한 용례이고, (39ㄱ′, ㄴ′)은 '-지 뭐'를 '-지'로 바꿔 제시한 용례이다. (39ㄱ)에서 '설칠'이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갈 때 뭐를 사면 좋을지 어머니인 '명자'에게 물어보는데, '명자'는 '-지 뭐$_2$' 구문을 사용하여 행위 권고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과일이나 케익이나 사가지 뭐'는 '과일이나 케익이나 사가면 될 것 같다'와 의미상 유사한데, 전자는 화자의 '상관없음'의 태도를 곁들여서 드러낸다. (39ㄴ)에서는 '윤아'가 '지영'에게 자기가 상사한테 찍힌 것 같다고 털어놓는데, '지영'은 이에 대해 상사를 피해 다니라고 권고하고 있다. (39ㄱ′, ㄴ′)는 '과일이나 케익이나 사가라/사가야 한다', '피해라/피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문/당위 표현과 의미가 유사하며, '-지 뭐$_2$' 구문에 비해 권고보다는 명령의 느낌이 강하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요청할 경우, '-지 뭐$_2$'는 화자가 상대방의 행위를 승인할 때 사용된다. 이때 화자는 상대방의 행위 제안에 '상관없음'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낸다.

(40) ㄱ. 진상: 나 괜찮으니까... 지금 퇴원장 끊자구요.

하윤: (어이없다는듯 픽 웃고) 웬일이냐? 너같은 뺀질이가. 어디 자해라도 해서..푹 쉴줄 알았더니..
진상: 나..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요.
하윤: (얘가 왜 이러나 싶은)...그래..원한다면.. 지금 퇴원하지 뭐.
<종합병원2, 4부>

ㄱ′. (얘가 왜 이러나 싶은)...그래..원한다면.. **지금 퇴원하지.**

ㄴ. 윤서: 저, 할머니한테 국수 만드는 거 배워도 되죠?
동아: 언제까지 우리한테 끼어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윤서: (막막하고)
동아: (보다가)하고 싶은 건 해봐야지 뭐. 알아서 해요.(돌아서서 걸
<글로리아, 11회>

ㄴ′. **(보다가)하고 싶은 건 해봐야지.** 알아서 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

(40ㄱ, ㄴ)은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청할 때 화자가 상대방의 행위를 승인한 용례이다. (40ㄱ′, ㄴ′)에서도 상대방의 행위를 승인하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지 뭐$_2$' 구문에 비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40ㄱ)에서 '진상'이 퇴원하겠다는 것은 좀 의외이지만 '하윤'은 상대방이 요구한 행위에 대해 '상관없음'의 태도를 곁들여서 승인한 것이다. (40ㄴ)에서는 '윤서'가 할머니한테 국수 만드는 법을 배워도 되는지 물어보는 상황에서 '동아'는 해보라고 '윤서'가 배워보고자 하는 행위를 승인하면서 '상관없음'의 태도를 곁들여서 드러낸다.

(41) ㄱ. 진분: 아이구.. 참... 기어코 그러시는구나. 기어코 그러셔. 그나 저나 즈이 엄마 결혼식 간다구 하루 종일 좋아서 콧노래만 부르던데, 두리가 실망이 크겠다.
민술: 대성이더러 보라 그래야지 뭐.
진분: 대성이두, .. 순정이 결혼식 보구 싶어 할텐데.
민술: ...할 수 없지 뭐. 어쩌겠어 그럼. <황금마차, 157회>

ㄱ′. **대성이더러 보라 그래야지**

행위의 주체가 제3자인 경우 화자가 제3자한테 어떤 행위를 부탁하려고 할 때 '-지 뭐$_2$' 구문이 사용되기도 한다. (41ㄱ)은 행위의 주체가 제3자인 경우의 용례이다. (41ㄱ)에서 밑줄 친 '민술'의 발화는 '두리'가 엄마의 결혼식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리' 대신 '대성'이 결혼식에 가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의미이다. (41ㄱ′)에 비해 '어찌할 수 없음'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낸다.

4.2.3. 주체가 화자 및 화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 행위 제안, 승인

'-지 뭐$_2$' 구문에서 행위의 주체가 화자 및 화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 주로 화자가 같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자고 제안하거나 승인할 때 사용되는데, 용법에 따라 나타내는 심리적 태도가 다르다. 화자의 행위 제안을 나타내는 '-지 뭐$_2$' 구문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종결어미 '-자'[14]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화자가 행위 승인을 나타내는 '-지 뭐$_2$' 구문은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을게'와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행위의 주체가 화자와 청자인 경우 주로 어떤 행위를 같이하고자 행위 제안을 하거나 상대방과 약속/만남 제안을 할 때 사용한다. 이때 화자는 '개의치 않음'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고 있다.

(42) ㄱ. 시은: 구성안 너무 재밌지 않어? 우리 코너만 튈 것 같아요.
현숙: 코너 키워서 우리가 아예 프로 하나를 만들지 뭐.
시은: 내 말이! 난 이번에 목숨 걸었어. <태양의 여자, 19회>
ㄱ′. **코너 키워서 우리가 아예 프로 하나를 만들자.**
ㄴ. 미라: 강석 오빠두 보구 싶다.
수미: 강석이두 너 왔다 그럼 좋아 할거다. 저녁 같이 먹지 뭐.

1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종결 어미'-자'에 대한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자$_{27}$: 「어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미라: 네, 그럴께요. <황금마차 70회>

ㄴ′. 강석이두 너 왔다 그럼 좋아 할거다. **저녁 같이 먹자.**

(42ㄱ, ㄴ)은 각각 상대방에게 같이 하고자 행위 제안, 약속 제안을 한 용례이고 (42ㄱ′, ㄴ′)은 '-지 뭐$_2$' 구문을 청유형 종결어미 '-자'로 바꿔 제시한 용례이다. (42ㄱ)에서 '시은'의 코너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현숙'은 코너를 키워서 단독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지 뭐'를 사용하면 청유형 종결어미 '-자'를 사용한 경우보다 제안의 의미가 약화되고, 상대방이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화자가 덜 신경을 쓰는 것처럼 여겨진다. 즉 '-지 뭐'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기보다는 화자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데 발화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42ㄴ)은 '강석'을 보고 싶다는 '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수미'가 '-지 뭐'를 사용해 저녁밥을 같이 먹자고 약속한 것이다. 화자는 청자가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때, '-지 뭐$_2$'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상대방의 의견/반응에 '개의치 않음'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드러내고 있다.

(43) ㄱ. 태영E: ***나와라, 자장면 사줄게.***

말순: 나 공부해야 하는데. 안돼. 공부할 거 많단 말이야

태영E: 그럼, 느네 집 가서 시켜먹지 뭐. <가문의 영광, 31회>

ㄴ. 정민: (뻘쭘) 아니...같이들 타고 내려가야지 내려갔다 또 올라오면 전력도 낭비되구...(말도 안된다. 변명 집어치우고) ...**이따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윤아: 어떡하지? 나 지영이랑 밥 먹기루 했는데.

정민: 그럼 셋이 같이 먹지 뭐.

윤아: 아니..지영이가 할 얘기가 있대서. 둘이 뭐 상의할 게 있다는데? 미안. <올드 미스 다이어리, 223회>

앞서 어떤 제안이나 요청을 했는데 성사되지 못하여 다시 제안을 할 때

또 '-지 뭐$_2$' 구문을 사용한다. (43ㄱ, ㄴ)은 모두 다시 제안을 한 경우의 용례이다. (43ㄱ)의 '태영'은 '밖에 나가서 짜장면을 먹자'는 제안이 거절당하자, '-지 뭐'를 사용하여 다른 제안을 하고 있다. (43ㄴ)의 '정민' 역시 '같이 점심을 먹자'는 제안이 거절당할 기미를 보이자, '지영과 셋이서 점심을 먹자'며 다른 제안을 한다. 이때 '-지 뭐$_2$' 구문은 협상/양보적인 느낌으로 상대방이 제안을 좀 더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행위의 주체가 화자와 제3자인 경우 주로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화자가 제3자와 어떤 행위를 같이 하겠다고 승인, 즉 약속할 때 사용한다. 이를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의미 '-을게'와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44) ㄱ. 민용: 어. 잠깐 (하다) 형 영화 볼래?
준하: 영화?
민용: 교직원용으로 공짜 티켓 나왔는데 난 시간이 안되서. 이거 오늘까 지거든.
준하: <u>그래. 니 형수랑 보러가지 뭐.</u> <거침없이하이킥, 30회>

ㄱ′. **그래. 니 형수랑 보러갈게.**

ㄴ. 사월: 연극 보러 오시라구요. 초대권이예요.
수호: 어이구, 별 선물을 다 주시네 감사합니다.
사월: 저도 출연하거든요. 꼭 보러 오세요 고문님. 오빠, 그럼 수고. (나간다)
수호: 저 친구가 연극도 하나?
준세: .....예....
수호: <u>시간되면 애 엄마랑 한번 가지 뭐.</u> <태양의 여자, 15회>

ㄴ′. **시간되면 애 엄마랑 한번 갈게.**

(44ㄱ, ㄴ)은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응한다는 행위 수행을 승인한 용례이고 (44ㄱ′, ㄴ′)은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을게'로 바꿔 제시한 용례이다. (44ㄱ)은 '민용'이 공짜 티켓으로 영화를 볼 의향이 있냐고 '준하'에게 물어보자, '준하'가 '-지 뭐'를 사용하여 행위 수행을 승인한

것이다. (44ㄴ)에서 ‘사월’이 연극을 보러 오시라고 요청하는데 ‘수호’가 시간 되면 와이퍼랑 같이 가겠다고 행위 수행을 승인 즉 약속을 한 것이다. (44ㄱ′, ㄴ′)에 약속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약화되어 실현된 듯하다.

‘-지 뭐$_1$’과 ‘-지 뭐$_2$’의 의미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은 주로 화자의 인식과 관련하여 문맥에 따라 명제에 대한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은 주로 사태/행위와 관련하여 사태에 대한 행위 주체에 따라 화자의 행위 승인, 권고, 제안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표 5> ‘-지 뭐$_1$’과 ‘-지 뭐$_2$’의 의미적 특성

<table>
<tr><td></td><td colspan="3">화자의 심리적 태도</td></tr>
<tr><td rowspan="4">명제와
관련된
‘-지 뭐$_1$’</td><td colspan="3">‘대수롭지 않게 여김’</td></tr>
<tr><td colspan="3">‘의심할 여지가 없음’</td></tr>
<tr><td colspan="3">‘심드렁함, 짜증/귀찮음’</td></tr>
<tr><td colspan="3">‘어찌할 수 없음’</td></tr>
<tr><td rowspan="6">행위와
관련된
‘-지 뭐$_2$’</td><td colspan="2">행위 주체</td><td>행위 의미</td></tr>
<tr><td>화자인 경우</td><td>화자</td><td>행위 승인</td></tr>
<tr><td rowspan="2">화자이외의 경우</td><td>청자(상대방)</td><td>행위권고 , 행위 승인</td></tr>
<tr><td>제3자</td><td>행위 승인</td></tr>
<tr><td rowspan="2">화자,
화자이외의 사람
경우</td><td>화자와 청자</td><td>행위 제안</td></tr>
<tr><td>화자와 제3자</td><td>행위 승인</td></tr>
</table>

5. ‘-지 뭐’의 담화 기능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지 뭐’ 구문은 용법에 따라 나타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다르다. ‘-지 뭐’은 담화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 뭐’가 담화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중점을 두어 살펴보겠다.

5.1. ‘더 이상의 논의 중지’ 기능

‘더 이상의 논의 중지’ 기능은 담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나 더 이상 말하기 싫을 때 ‘-지 뭐’를 통해 더 이상의 논의를 중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45) ㄱ. 효주: (대충 둘러보며) 그럼 준비 다 됐나? (하다가) 참! 샴페인!
샴페인이 없다.
경택: 아, 없으믄 그냥 있는 술 마시믄 되았제.. 쩌기 술 많구만...
효주: 안돼 ! 15년만에 챙겨먹는 생일인데 샴페인을 빼놓자구?
말자: 그래요... 생일파티는 샴페인 터트리는 맛인데...
건: 가 사오지 뭐... 갔다올께... <어느 멋진 날, 16회>

ㄴ. 다래 : (수경에게) 미대 갔다며? 학교는 어때? 재밌어?
수경: (다정한 미소로) 캠퍼스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민: 거긴 무슨 학부야? 설마 (팔뚝 보이며) 체대?
다래: 나? (웃고, 장난기로) 난, 판매부.
성욱: 판매부?
다래: (밝게) 학생 아냐, 나.
혁: ! (다래 보는데)
수경: 그래, 얘.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정말 안 됐다는 듯 다래 손 잡으며) 많이 힘들었지? 형편도 안 좋아졌다며..
<러빙유, 1회>

(45ㄱ)은 생일파티에 샴페인을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들이 샴페인이 필요한지 논의를 하는 중에, '건'이 '-지 뭐' 구문을 사용하면서 샴페인을 사오겠다는 행위를 승인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를 곁들여서 샴페인을 사면 해결되는 일이라는 뉘앙스의 의미를 드러내어 논의를 중지하는 기능을 한다. (45ㄴ)은 '수경'이 친구들과 '다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상대방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연속 질문을 하는데, '수경'이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거나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 뭐'를 사용함으로써 '캠퍼스 생활이 특별한 것 없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게 유도하여 논의를 중지하게 되었다.

5.2. '평가절하' 기능

'-지 뭐'는 '평가절하'의 기능을 가진다. '-지 뭐'의 '평가절하' 기능은 상대방이 명제를 너무 높게 평가하여 그 명제에 화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나, 여의찮은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음의 태도를 드러내므로 명제의 중요성을 약화하여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46) ㄱ. 시연: 미술공부 제대루 해서 미대 가볼 생각은 없어요?
민규: 하구싶다구 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연: 하구싶음 하는 거지 뭐…안 될게 뭐야? <그대그리고나, 24회>
ㄴ. 아주머니: 어머! 이게 머야! 아휴! 어떡해! 아휴, 정말!
영재: 죄송합니다.
(그 때, 자신의 장갑으로 아이스크림을 닦는 민아.)
민아 :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됐어요, 할 수 없지 뭐. <...ing, 영화>

(46ㄱ)에서 '시연'은 '민규'에게 미대에 가볼 생각이 없는지 물어본다. '민규'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아채자, ‘시연’은 ‘-지 뭐’ 구문을 이용해 상대방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명제를 약화하여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곁들여서 평가절하의 기능을 한 것이다. (46ㄴ)은 아주머니의 옷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을 묻혀서 ‘영재’와 ‘민아’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아주머니는 ‘-지 뭐’를 사용함으로 상황에 대한 ‘어찌할 수 없음’의 태도를 곁들여서 상대방이 실수한 상황에 평가절하의 기능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47) ㄱ. 주인: (통 내주면서) 이거 열무김친데 한번 먹어봐.
차연: **(받으며) 고맙습니다. 번번이 신세만 지고.**
주인: 없는 사람들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뭐. 내가 두리 보면 속이 싸해 죽겠어. 이 어린 게 어찌나 속이 깊은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하고.... <눈물이보일까봐 정유경, 1-16회>
ㄴ. 서영: 역시 이런 선배 뒤에는 그런 분이 계셨군요.
태호: 아,아니야. 우리 부부라구 뭐 있겠어. 젠더의 한계를 넘어서진 못하지. 좀 플렉서블 하면 좋을텐데... 완고해. 나나 와이프나.
서영: **아참, 책두 쓰셨죠?**
태호: 책? 어어, 쓸 데 없는 잡문이지 뭐... 이따 한 권 줄께.
서영: 정말요? 싸인해서 주세요. <결혼해주세요, 1회>

‘-지 뭐’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평가절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이 감사나 미안함을 표하거나, 칭찬할 때, ‘-지 뭐’를 사용하여 응답하여 상대의 발화를 가볍게 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 (47ㄱ)은 ‘차연’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이때 ‘주인’은 ‘-지 뭐’ 구문을 사용하여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라고 가볍게 부정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므로 겸손을 드러낸다. (47ㄴ)에서는 ‘서영’이 ‘태호’의 책을 언급하자, ‘태호’는 자신의 책을 ‘잡문’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상대방의 칭찬에 겸손함을 나타낸 것이다.

5.3. ‘협상/교섭’ 기능

‘-지 뭐’는 협상/교섭 기능도 있다. 화자가 제기한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화자는 ‘-지 뭐’를 사용함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다시 한다.

(48) ㄱ. 형주: (태훈에게) 연수 가기 전에 슬슬 스터디 해야지 우리. 언제부터 할까?
태훈: ***다음주부터 하자. 금요일 오후 어때?***
동일: 방과후 모임 있는 날이잖아.
귀족2: 제끼면 되지. 하나같이 멍청한 모임들 뿐인데.
동일: 방과 후 모임 안하면 내신에 영향 있을 텐데...
태훈: 그럼 스터디 모임 따루 잡을꺼 없이 우리끼리 방과후 모임 하나 만들지 뭐.
형주: 것두 괜찮은 방법이지. <학교2, 4회>
ㄴ. 영옥: **사돈~ 오늘 저녁 칼국수 어때?**
우현: (영옥말이 귀에 안들어온다. E) 밥은 제대로 챙겨 드시는 건가...아까 오셨을 때 점심이나 챙겨 드릴 걸...(푹~ 한숨쉬는)
영옥: (우현 반응에) 아니.. 뭐.. 꼭 해먹자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반찬해서 먹지 뭐. <올드 미스 다이어리, 202회>

(48)은 ‘-지 뭐’ 으로 다시 제안하는 용례이다. (48ㄱ)에서 스터디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첫 번째 제안이 성사되지 못하자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태훈’은 상대방들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지 뭐’를 사용함으로 설득을 하는 듯 협상/교섭의 기능을 한 것이다. (48ㄴ)에서 ‘영옥’이 먼저 사돈인 ‘우현’에게 저녁은 칼국수를 먹는 게 어떤지 물어보는데, ‘우현’이 반응이 없자 거절 의사로 받아들여 다시 반찬을 해서 먹자고 제안하는데 이때, 협상/교섭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5.4. ‘완화’ 기능

완화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 표현이나 반박 등을 약화해서 발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지 뭐’가 담화에서 ‘완화’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다음 용례와 같다.

(49) 세정: (웃으며) 자기야, 뭘 그렇게 봐?
정선: 도연씨, 어때요? 서울 많이 변했어요?
도연: (미소) 하늘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세정: 딱 하나 불만이 저거야. 도연씨 너무 감성적인거.
정선: (흘기며) 복에 겨운 소리한다. 낭만적이고 좋지 뭐.
<그 여자, 1-20회>

(49)는 ‘세정’이 ‘자신의 유일한 불만은 도연이가 너무 감성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자 ‘정선’이 ‘-지 뭐’를 사용하여 ‘낭만적이고 좋다’고 표현하면서 ‘세정’의 선행 발화에 대한 반박을 완화하였다. 여기서 화자가 반박의 약화를 통해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보호하였다. 이때의 ‘-지 뭐’는 완화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5.5. ‘강조’ 기능

강조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생각이나 의지를 강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지 뭐’의 강조 기능을 나타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50) ㄱ. 복실: 기획 회의...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무슨 절차 같은 거는 없나요?
승희: 응.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감독 마음이야.
복실: 글쿠나.
승희: 감독이 왕이지 뭐. 지 멋대로 하는 맛에 다들 감독할려는 거

야.

복실: (끄덕) 글쿠나아. <넌 어느 별에서 왔니, 6회 >

ㄴ. 독고진: (온 웨이터 의식하곤 사근사근하게)뭐 드시겠어요?

혜선: 글쎄. 뭐가 좋은가?

독고진: 여기 레몬그라스 허브티 좋아요? 괜찮으세요?

혜선: 그래요! 진이씨 따라 한 번 해보지 뭐..

<귀여운 여인, 1-10, 13-16회>

(50ㄱ)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용례이고, (50ㄴ)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용례이다. (50ㄱ)에서 '승희'는 '복실'에게 기획 회의에 대해 물어보자 감독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알려주면서 감독이 '왕'이라는 사실을, 즉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다. (50ㄴ)에서 취향을 물어보는데, '혜선'은 '독고진'의 의견을 따라 하겠다는 의지를 '-지 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지 뭐'의 강조 기능은 화자의 주장 즉 명제를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행위 수행 즉 화자의 의지도 강조하여 드러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지 뭐’ 관련 표현

본 장에서는 ‘-지 뭐’와 관련된 표현 ‘-네 뭐’, ‘-ㄴ데 뭐’, 중국어 ‘呗’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지 뭐’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들을 ‘-지 뭐’의 관련 표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말뭉치를 조사한 결과 담화표지 ‘뭐’가 종결어미나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뒤에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네 뭐, -ㄴ데 뭐, -다 뭐, -구만 뭐, -더라 뭐’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15] 구어 말뭉치에서 출현 빈도를 조사한 결과 ‘-네 뭐’와 ‘-ㄴ데 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16]

둘째, 남길임·차지현(2010: 107-108)은 종결어미 ‘-지’, ‘-네’와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는데’ 뒤에 담화표지 ‘뭐’가 나타내는 경우를 양태 어미 패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이들이 일정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화에서 화자는 대화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청자를 더 많이 의식하고, 명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7] 용례를 살펴본 결과 본 관점에 대해 동의하여 ‘-네 뭐’, ‘-ㄴ데 뭐’를 관련 표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지 뭐’ 구문은 중국어 어기사 ‘呗’와 문법·의미적인 면에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지 뭐’의 관련 표현으로 간주

---

15) 말뭉치에서 ‘-네 뭐, -ㄴ데 뭐, -다 뭐, -더라 뭐’유형의 용례를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민자: 오히려 입 떼기 힘들었을텐데, 니가 잘했네 뭐. <황금마차, 52회>

ㄴ. 승미: 인터넷 보면 만드는 법 다 나와 있는데 뭐. <찬란한 유산, 8회>

ㄷ. 하영: 신상이야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젤 확실하다 뭐... <변호사들, 1회>

ㄹ. 시내: 나 없이도 잘하고 있구만 뭐. <맛있는 청혼, 13>

ㅁ. 지숙: 그 남자....괜찮더라 뭐. 병원에서 보니까 더 멀쩡하던데? <청춘의 덫, 16-20회>

16)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네 뭐’ 227회, -ㄴ데 뭐’ 1211회, ‘-다 뭐’ 99회, ‘-구만 뭐’ 31회, ‘더라 뭐’ 6회로, ‘-ㄴ데 뭐’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네 뭐’가 두 번째로 높았다.

17) 이 부분은 남길임·차지현(2010: 10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한다.

6.1. '-네 뭐'

'-네 뭐'는 '-지 뭐$_1$'과 같이 모두 명제에 대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는데, '-네 뭐'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깨닫고 판단하였는지를 드러낸다. '-네 뭐'의 정보의 증거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박진호(2011: 4)에서 제시한 증거성의 개념 공간을 구성하는 6개항[18]에 의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51) ㄱ. 한영: 언니 울어?
해영: 안 울었어. (하고 눈물 닦는)
한영: 울었네 뭐. **(시각)**
ㄴ. 재옥: 고기 냄새까지 나네 뭐. 잘 놀구 왔네. **(후각)**
ㄷ. 엄마: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불안 불안 하냐. 너는 사주에 정치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살림을 하니까 이 모냥 이 꼴이지. 김치 먹어봐!
이슬: 맛있네 뭐.**(미각)**
ㄹ. 루미: (차 지나가는것 보다가 불퉁)...다 들리네 뭐. **(청각)**
ㅁ. 석호E: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내가 사내라는 거. 끊을게.(뚜 하는 신호음)

---

18) 박진호(2011: 4)에서 제시한 증거성의 개념공간을 구성하는 6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지각 (visual perception)
2. 시각 이외의 지각(non-visual perception)
3. 내적 사유,內省(introspection, endophoric reflection)
4. 지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inference based on perceptual evidence)
5.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 (reasoning based on general assumption, presumptive, assumptive)
6. 傳聞(hearsay, quotative)

영인: .....(자조적으로) 나 잘라낸 거 맞네 뭐. **(내성)**

ㅂ. 은비: 정혜 안 왔니? 등 좀 밀어야겠는데... 찌뿌둥한 게...

세영: (시계를 흘끔 보고는) 30분쯤 더 있어야겠네 뭐.... **(추리)**

ㅅ. 유: (메시지 읽고) 이거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짜증나게.

기웅: 뭔데 그래요?

유: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 번호로 자꾸 이상한 문자 날아와요.

박: 스팸문자네 뭐. 나도 가끔 와. **(추론)**

(51ㄱ)은 시지각의 증거를 통한 인식을 드러내는 용례이고 (51ㄴ~ㄹ)은 시각 이외의 지각 증거 즉 각각 후각, 미각, 청각을 통한 인식을 드러내는 용례이며 (51ㅁ~ㅅ)은 각각 내성, 추리, 추론을 통한 인식을 드러내는 용례이다. '-네 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가 가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명제에 대한 인식적 판단을 나타내므로 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명제를 높게 평가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이를 가볍게 반박/부정할 때 '-네 뭐' 구문이 사용되는데, 이때 화자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심리적 태도가 나타난다.

(52) ㄱ. 여종업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요. 기영이 아빤데 문제 될 거 없잖아.

기모: 그 사람 한의사야.

여종업원: 같은 사자 직업이네 뭐. 언니는 미용사구!

<비밀의 교정, 1-24회>

ㄴ. 태자: (나오며) 아침부터 또 왜 그래?

찬순: (옷흔들며) 태자야, 내말 좀 들어봐라.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다림질 하다가 옷을 홀랑 태워먹었으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구 나와야지, 어디 간뎅이 부어터지게 지멋대로 팔 싹뚝 짤라서 민소매로 만들어놓니?

태자: 잘했네 뭐.
찬순: 뭐? <소문난 칠공주, 1-80회>

(52ㄱ)은 명제를 높게 평가하여 가볍게 반박을 한 용례이고 (52ㄴ)은 상대방이 불만을 토로하자 '-네 뭐'를 사용하여 가볍게 반박을 한 용례이다. (52ㄱ)은 '여종업원'이 '기모'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자, '기모'가 신분 차이 때문에 재결합이 어렵다는 반응을 하는 상황이다. '여종업원'은 여기에서 '-네 뭐'를 사용한 농담으로 '같은 사자 직업'이라고 '기모'의 말에 반박을 한다. (52ㄴ)에서는 시어머니 '찬순'이 며느리가 옷을 민소매로 만들었다는 불만을 아들 '태자'에게 얘기하는데 '태자'는 '-네 뭐'를 사용하여 가볍게 '찬순'의 불만을 반박하였다.

말뭉치 예문을 살펴보면 '-지 뭐'와 달리 '-네 뭐'는 선행 발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의 화제를 전환하거나 마무리할 때도 사용한다.

(53) ㄱ. [서교수가 음식 쟁반을 들고 와서 박교수 앞에 앉으며 얘기를 꺼냄]
서교수: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이네 뭐.
박교수: (이미 앞에 음식 쟁반을 놓고 앉아있는 상태) 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서교수: 니가 아직 여기 현실을 잘 모르고 있나본데.. 여기 대부분 아이들 석박사 되려면 10년은 이 안에서 청춘을 바친다구. 얘들 사회에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아니? 잘해봐야 연구원이야. 전산인력이라면 한마디로 3D업종이지. 봉급 박하지. 일은 허구 헌날 밤새는 일이지. 대개 연구소는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 결혼생활도 힘들어. 윗사람 눈에 띄질 않으니 승진도 어렵고.
박교수: ...그렇겠지. <카이스트, 4회>

ㄴ. 유미: 난 정말 좋은 일 있어.
일동 (본다)
혜정: 좋은 일이 뭐야?
유미: 나.. 이혼할거야.

일동: !
유미: (짐짓 미소 지어 보인다) 그런 표정 하지마. 나한텐 이거.. 좋은 일이야... (하는데)
혜정: (웃는) 그래 좋은일이다. 좋은일 맞네 뭐. (유선보고) 유선이 넌 뭐 놀래킬 일 안 남았니? 좋은 일 없어?
<네 자매 이야기, 11-20회>

ㄷ. 미숙: 그게 전부야?
철구: (웃으며 끄덕 끄덕)
미숙: 30만원?
철구: 많지?
미숙: 우리 부자네 뭐.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18회>

(53ㄱ)은 화제 도입의 용례이고 (53ㄴ)은 화제 전환의 용례이며 (53ㄷ)은 화제 마무리의 용례이다. (53ㄱ)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의 명제를 표현할 때 '-네 뭐' 구문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의 태도를 곁들여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화제 도입으로 후행 발화에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화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 (53ㄴ)에서 '유미'가 자신의 좋은 일이 바로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낸 상황에서, '혜정'은 '-네 뭐' 구문을 사용하여 '유미'의 발화에 빨리 수긍하고, '유미'의 체면을 위해 '유선'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였다. (53ㄷ)에서는 '철구'가 전 재산이 30만원인데 많지 않냐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미숙'은 '우리 부자네 뭐'라고 응답하며 상대방의 발화를 수긍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마무리하였다.

6.2. '-ㄴ데 뭐'

'-ㄴ데 뭐'도 '-지 뭐$_1$'과 같이 명제에 대해 화자의 인식이나 판단을 나타내고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낸다. '-ㄴ데 뭐'는 명제에 대

해 감탄의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상대방이 화자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걱정할 때, 화자가 '-ㄴ데 뭐' 구문을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함으로 상대방의 부담이나 걱정을 덜어주는데, 이때 화자의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심리적 태도가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화자는 '괜찮아, 아니, 됐어' 등의 표현과 함께 '-ㄴ데 뭐'를 자주 사용한다.

(54) ㄱ. 효정: 드레스 찾으러 진주 가야 되지? 내가 약속만 없으면 거기까지 같이 가주는 건데. 그냥 내일 갈래?
유경: 괜찮아. 버스타면 금방인데 뭐. <환상의 커플, 5회>
ㄴ. 지민: 정말 괜찮겠어?
정연: 괜찮아. 약 먹었는데 뭐. <학교2. 6회>

(54ㄱ)은 미안해하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례이고, (54ㄴ)은 화자를 걱정하는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주는 용례이다. (54ㄱ)에서 '효정'은 약속 때문에 '유경'과 함께 진주를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해하는 상황인데, '유경'은 '-ㄴ데 뭐' 구문을 사용하여 '버스 타면 금방인데, 신경 쓸 필요 없어'의 뉘앙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를 드러내어 '효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54ㄴ)에서는 '정연'이 자신을 걱정하는 '지민'에게 '-ㄴ데 뭐' 구문을 사용하여 '걱정할 필요 없음'의 의미를 전달하여 '지민'의 걱정을 덜어준다.

(55) ㄱ. 다소: (어색하고 겁도 난다) 저기.. 다른 비디오방에 가면 안돼요? 여기는 좀 답답한거 같은데.
태웅: 비디오방 다 이래요. 여기는 괜찮은 편인데? 좋은데 뭐. 앉아요. <수호천사, 1-16회>
ㄴ. [수족관에서 아들 승희가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얘기 꺼냄]
승희: 데이트 아니에요.
수일: 데이트 맞던데 뭐. 부모 눈은 못 속인다, 너.

승희: 데이트 아니라고요. 일 가르치는 중이었어요.

<너 어느 별에서 왔니, 5회>

생각이나 느낌이 상대방과 다르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자가 선행 발화를 가볍게 반박/부정 할 때 '-ㄴ데 뭐' 구문을 사용한다. (54ㄱ,ㄴ)은 모두 상대방의 발화를 가볍게 반박하는 용례이다. (54ㄱ)에서 상대방이 비디오방이 답답해 바꾸고 싶다고 제안을 한 상황에서 '-ㄴ데 뭐' 구문을 사용해서 화자는 비디오방이 좋은 것 같다고 반박하여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다. (54ㄴ)에서 아들 '승희'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데이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수일'은 자신이 수족관에서 본 사실을 통해 데이트가 맞다며 '-ㄴ데 뭐'구문을 사용하여 가볍게 반박을 한 것이다.

6.3. 중국어 '呗'

'-지 뭐'와 중국어 어기사 '呗'는 용법상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어기사 '呗'를 살펴보고자 한다.

吕叔湘(1980)에서 '呗'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呗'用在陈述句末尾，语气大致同'吧'， 多一些感情色彩。

'呗'이 평서문 문말에 사용되면, 어기는 '吧'와 비슷하다. 감정적 색체를 더 지닌다.

1. 表示道理简单， 无须多说。

'도리가 간단하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의 의미를 가진다.

例：靠什么完成任务？ 靠咱们集体的力量呗。

예문: 무엇으로 임무를 완성합니까? 우리의 집단의 힘에 의지하는 거지 뭐.

2. 用'动+就+动'的句子末尾， 这种句子表示'没关系'， '不要紧'。

'V+-(으)면+V'의 구문 문말에 사용하면, 이때 '괜찮음', '문제 없음'의 의미를 가진다.

例： 下就下**呗**， 咱们带着雨衣呢！

예문: 내리면 내리지 뭐. 우리가 우비 챙겼잖아.

3. 用在'就得了'、'就行了' 等之后。

'~(으)면 되지 ', '~(으)면 그만이지'뒤에 사용한다.

例：人家改了就**得了呗**！/ 土块太多， 再耕一遍不就**行了呗**！

예문: 남이 고쳤으면 됐지 뭐!/ 흙덩이가 많으면 한번 더 갈면 그만이지 뭐!

吕叔湘(1980)에 따르면 '呗'는 평서문 문말에 나타나고 어기가 '吧'와 비슷하지만 감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한다. '呗'의 설명을 살펴보면 첫째, '呗'는 '도리가 간단하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의 뜻을 나타낸다. 둘째, '呗'은 'V+-(으)면+V'의 구문 문말에 사용된다. 이때 문장의 뜻은 '괜찮음', '문제없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한다. 셋째, '~(으)면 되지', '~(으)면 그만이지' 뒤에서 나타난다.

후속 연구에서 '呗'의 문장 유형에 대해 정리하면 张筱平(1993), 徐晶凝(2007) , 赵春利·石定栩(2015), 王淑亭(2020)에서는 '呗'가 평서문, 명령문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고, 王璨(2006), 李咸菊(2010)에서는 '呗'가 평서문, 명령문뿐만 아니라 의문문으로도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呗'의 화용 기능에 대한 연구로는 王璨(2006), 徐晶凝(2007), 李咸菊(2010), 胡明亮(2014) 赵春利·石定栩(2015), 王淑亭(2020) 등이 있다.

王璨(2006)에서는 '呗'가 나타내는 어기의 의미 성분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높은 신뢰도 (传信度)], [+단순/가뿐 (简单/轻松)], [+마음대로(随意)]의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呗'의 의미기능은 담화표지 기능, 협상 추진 기능, 소극적 정보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徐晶凝(2007)에서는 '呗'의 핵심적 의미를 '술유기책'[19]으로 파악하고,

19) 徐晶凝(2007:73)에 따르면 술유(述唯)란 화자가 말한 것이 (단언이나 청유를

화자의 태도는 주로 '도리가 간단하여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음', '상관하지 않음',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였다.

李咸菊(2010)에서는 '呗'가 '대수롭지 않게 여김', '상관 없음', '어쩔 수 없음', '명백히 알 수 있음', '말 안 해도 앎', '제안', '상의', '요청'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呗'의 기능을 화제 표지 기능과 정보 관련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胡明亮(2014)에서는 '呗'의 핵심 의미를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의미기능은 선행 발화를 이어받는 기능, 화제 전환 기능, 분위기 완화 기능으로 나누었다.

赵春利·石定栩(2015)에서는 '呗'의 핵심 의미를 '응이부원'[20]으로 설정하고 화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김, 어쩔 수 없음, 귀찮음, 불만족'의 태도를 나타내며 '呗'의 기능을 '상황을 받아들임, 의혹을 풀어줌, 문제 해결함, 행위를 권고함'으로 보았다.

王淑亭(2020)에서는 '呗'를 '화자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의미범주'로 본다. '呗'에서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음',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태도를 가지고 화자의 어기는 '어쩔 수 없음', '가뿐하고 편함'등 두 가지 어기로 실현되며 화자의 감정은 '귀찮음의 부정적 감정'과 '불만의 부정적 감정'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의미 기능은 협상순응의 기능과 정보관련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呗'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화자의 태도나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呗'이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는 주로 '대수롭지 않게 여김, '의심할 필요 없음', '어쩔 수 없음' 등이며 화자의 감정은 주로 '귀찮음'과 '불만'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어기는 '어쩔 수 없음의 어기'와 '가

할 때) 유일한 가능성이고, 청자나 상대방이 마땅히 알아야 하며, 화자 본인은 그냥 가능성에 대해 말했을 뿐이라고 여긴다. 기책(弃责)이란 화자가 깊은 사유를 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화하고, 상대방(청자)에 대해 상호적 자격(交际身份)으로서 갖는 처리(处置) 책임을 포기함을 말한다.

20) 赵春利·石定栩(2015:75)에 따르면 '응이부원(应而不愿)'은 말로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 주기는 하지만 감정상으로는 내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벼운 어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미 기능을 보면 주로 담화표기의 기능, 정보관련 기능, 협상 기능이다.

'呗'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呗'의 선행연구 정리

<table>
<tr><th></th><th colspan="2">핵심 의미</th><th>문장 유형</th><th>화자의 태도</th><th colspan="2">의미 기능</th></tr>
<tr><td>王璨
(2006)</td><td colspan="2">—</td><td>평서문
명령문
의문문</td><td>[+비교적 높은 신뢰도]
[+단순/가뿐]
[+마음대로]</td><td colspan="2">담화표지 기능
협상추진의 기능
소극적 정보 관련기능</td></tr>
<tr><td rowspan="2">徐晶凝
(2007)</td><td rowspan="2">술유기책</td><td>화자는 경솔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유일한 가능성을 단언하거나 명령하다.</td><td rowspan="2">평서문
명령문
'A(으)면A'구</td><td rowspan="2">1. 도리가 간단하여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음
2. 나랑 무슨 상관,그러거나 말거나 , 상관 없음
3. 어쩔 수 없음</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화자가 주관적으로 청자에 상호적 자격으로서 갖는 처치 책임을 포기하다.</td></tr>
<tr><td>李咸菊
(2010)</td><td colspan="2">—</td><td>평서문
명령문
의문문</td><td>1. 대수롭지 않게 여김, 상관없음
2. 어쩔 수 없음</td><td>화제표</td><td>화제 도입
화제 순응</td></tr>
</table>

<table>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3. 명백히 알 수 있음, 말 안 해도 앎
4. 제안, 상의, 요청</td><td>기기능</td><td>화제 되돌림</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rowspan="3">정보관련기능</td><td>소극정보관련</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정보관련요청</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협상권유순응</td></tr>
<tr><td>胡明亮
(2014)</td><td rowspan="3">만족</td><td>도리가 간단하다</td><td rowspan="3">대답문
명령문
‘V(으면)V’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2" rowspan="3">화제 연결 기능
화제 전환 기능
완화 기능</td></tr>
<tr><td>상관없음</td></tr>
<tr><td>상관하지 않음</td></tr>
<tr><td>赵春利·石定栩
(2015)</td><td colspan="2">응이부원</td><td>평서문
명령문</td><td colspan="3">대수롭지 않게 여김</td><td rowspan="4">승수해권</td><td>상황 받아들임</td></tr>
<tr><td colspan="3">어쩔 수 없음</td><td>의혹 풀음</td></tr>
<tr><td colspan="3">귀찮음</td><td>문제 해결</td></tr>
<tr><td colspan="3">불만족</td><td>행위 권고</td></tr>
<tr><td>王淑亭
(2020)</td><td colspan="2">화자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의미범주</td><td>평서문
명령문
‘X(으)면X呗’</td><td>화자태도</td><td>화자어기</td><td>화자감정</td><td colspan="2" rowspan="2">협상순응 기능
정보관련 기능</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1. 의심할 필요 없음의 화자태도
2. 대수롭게 여김의 화자태도</td><td>1.어쩔수 없음의 어기의미,
2.가뿐하고 편함의 어기의미</td><td>1.귀찮음의 부정적 감정
2. 불만의 부정적 감정</td></tr>
</table>

‘呗’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와 ‘-지 뭐’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1. 어기사 ‘呗’와 ‘-지 뭐’는 모두 문말 위치에 나타내며 화자의 주관적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연구자에 따라 ‘呗’가 나타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소 견해 차이가 있지만 종합하여 보면 ‘呗’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김, 어쩔 수 없음, 의심할 필요 없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 뭐$_1$’에서 나타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비슷하다. 그리고 ‘呗’는 ‘-지 뭐$_2$’의 제안, 협상, 청유의 의미도 나타낸다.

2. 어기사 ‘呗’와 ‘-지 뭐’가 나타내는 문장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어기사 ‘呗’의 문장유형은 학자에 따라 ‘평서문, 명령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본 결과 ‘-지 뭐’는 의문문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3.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기사 ‘呗’와 ‘-지 뭐’는 번역에서 대체될 수 있는 듯하다.

① 기자는 목축민에게 목초지가 퇴화된 원인을 물었다.
记者问牧民草场退化的原因
牧民： 牛羊太多了呗……。 王淑亭(2020:9)
⇒ 목축민: 소와 양이 너무 많았**지 뭐**……

② 실력 없으면 지는 거지 뭐. 김문기·김형복(2018:51)
⇒ 没有实力就输**呗**。

7. 결론

지금까지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지 뭐'를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과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 나눠서 각각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 그리고 '-지 뭐'의 담화 기능, 관련 표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명제와 관련된 '-지 뭐$_1$'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지 뭐$_1$'의 통사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장 유형은 평서문으로만 나타난다. 둘째, '-지 뭐$_1$'는 형용사, 동사, 계사 '-이-'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셋째, '-지 뭐$_1$'가 높임 표현 '-시-'와 결합하는 경우 주로 제3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고 '-지요 뭐'/'죠 뭐'로 사용 가능하다. '-지 뭐요'은 형식상 높임 표현 같지만 의미상 '-지 뭐예요'와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 뭐$_1$'는 아무런 시제 제약이 없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지 뭐$_1$'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종결어미 '-지'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지 뭐$_1$'은 용법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여김', '의심할 여지가 없음', '심드렁함, 귀찮음/짜증'등 부정적 태도, '어찌할 수 없음'등 다양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행위와 관련된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 뭐$_2$'의 통사적 특성으로 첫째, 문장유형은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둘째, '-지 뭐$_2$'와 결합하는 선행 용언에는 제약이 있다. '-지 뭐$_2$'에는 동사만 결합할 수 있으며 높임 표현의 용법은 '-지 뭐$_1$'과 같다. 그리고 '-지 뭐$_2$'는 현재시제와 미래시제로 실현하는데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선어말어미 '-겠-'이 사용되지 못하고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와 주로 공기한다. '-지 뭐$_2$'는 주로 행위 주체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주체가 화자인 경우, 주로 '행위 승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상황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여김', '어찌할 수 없음'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주체가 화자 이외인 경우, 행위 주체가 청자(상대방)이면 주로 '행

위 권고'와 '행위 승인'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상대방에게 행위를 권고할 때 경우에 따라 사태에 대해 '중요하지 않음'이나 '상관없음'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드러낸다. 행위 주체가 제3자이면, 주로 '행위 승인'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상관없음'이나 '어찌할 수 없음'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행위 주체가 화자, 화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 행위 주체가 화자와 청자이면 '행위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상대방의 의견이나 반응에 대해 '개의치 않음'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곁들여서 나타내고, 행위 주체가 화자와 제3자이면 주로 '행위 승인'의 의미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 뭐'의 담화 기능을 검토하였다. '-지 뭐'의 담화 기능은 '더 이상 논의 중지', '평가절하', '협상', '완화',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 뭐'의 관련 표현으로 '-네 뭐', '-ㄴ데 뭐', 중국어 '呗'에 대해 살펴보았다. '-네 뭐'와 '-ㄴ데 뭐'는 '-지 뭐$_1$'과 같이 모두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판단을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네 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데, 상황에 따라 '의심할 여지가 없음',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ㄴ데 뭐'는 명제에 감탄의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김'의 심리적 태도를 덧붙이기도 한다. '-지 뭐'와 중국어 '呗'는 모두 문말에 나타나며 '呗'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수롭지 않게 여김', '어쩔 수 없음', '의심할 필요가 없음'이라는 '-지 뭐$_1$'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한다. 또한 '呗'는 '-지 뭐$_2$'의 제안, 협상, 청유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강상호(1989), 《조선어입말체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12(1), 17-53.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2》, 집문당.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구종남(2000), 담화표지 '뭐'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35, 5-32.

김명희(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12(2), 41-63.

김문기·김형복(2018), 한국어 문법 '-지뭐' 구성의 의미기능 연구, 《우리말 연구》 52, 33-57.

김선희(1995), 담화표지의 의미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27, 5-26.

김태인(2016), 문장의 의미 범주와 부사어 부류, 《한국어 의미학》 51, 57-83.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 _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길임·차지현(2010), 담화표지 '뭐'의 사용패턴과 기능, 《한글》 288, 91-119.

노은주(2016), 한국어의 문장종결 어미 '-지' 인식양상 표지 vs. 상위표상 표지, 《언어》 41(2), 267-287.

무치얼(2022), 한국어 부사 '그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여 문법 요소, 《한국어 의미학》43 , 1-25.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아학》 60, 289-322.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송인성(2013), 담화표지 `뭐`의 기능과 운율적 특성, 《한국어학》 58, 83-106.

유나(2016),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연(2001), 현대 한국어 경어법 전환의 화용론적 연구: 공손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2012),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한규(1999), 한국어 담화 표지어 ‘뭐’의 의미, 《담화와 인지》 6(1), 137-157.
이효진(2005), '뭐'의 담화상 의미기능 연구, 《어문논총》 16, 65-81.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정경미(2017), 종결어미 '-지'의 의미 분석, 《한국어학》 75, 273-302.
정윤희(2005), 국어 의문사 '뭐'의 의미 분석, 《겨레어문학》 35(0), 109-131.
조민정(2017), 종결어미 '-네(요)'의 의미와 맥락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지연(2020), 의문문 형성 표지로부터 발달하는 선어말어미 상당구성과 담화표지에 대하여 '-다아니-' '아이가'(동남방언)와 '-지뭐(이)-' '뭐'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40, 207-238.
최수정(2014), 종결어미 '-지'의 인식 양태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55, 279-314.
포연(2016), 한국어의 구어 문말 형식 ‘-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Culpeper, J.(1996), Toward an anatomy of impoliten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349-367.
李咸菊(2010),口语交际中‘呗’的多维选择及话语功能 ,《洛阳师范学院学报》,29卷, 第3期, 131-135.
吕叔湘(1980),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胡明亮(2014), “呗”的语义语用分析,《语文学刊》第16期, 33-34.
徐晶凝(2007), 语气助词‘呗’的情态解释,《语言教学与研究》第3期, 72-79.
徐晶凝(2003), 语气助词‘吧’的情态解释 ,《北京大学学报》第4期 , 143-148.
赵春利·石定栩(2015), ‘呗’的态度取向及其语义基础,《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 68-78.
张筱平(1993), 淡语气助词‘呗’ ,《思维与智慧》第2期, 40-44.
王璨(2006), 语气词‘呗’的语气意义及话语标记功能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王淑亭(2020), 现代汉语语气词‘呗’的情态意义与语用功能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부록

영화 대본 목록

...ing
10억
301 302
4인용 식탁
7급 공무원
8월의 크리스마스
YMCA 야구단
가루지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영광
가을로
가족의 탄생
각설탕
간첩 리철진
강력 3반
강원도의 힘
강철중
거룩한 계보
거미숲
거북이 달린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걸프렌즈
검은 집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고고70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사-피의 중간고사
고양이를 부탁해
공공의 적
광식이 동생 광태
괴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국가대표
국화꽃 향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귀여워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놈 목소리
그놈은 멋있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랑프리
그해 여름
극락도 살인사건
기막힌 사내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김씨 표류기
김종욱 찾기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남극일기
내 마음의 풍금
내 깡패같은 애인
내 사랑 내 곁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너는 내 운명
넘버3
누가 그녀와 잤을까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님은 먼곳에
다세포소녀
다찌마와리
단적비연수

달마야 놀자
달콤, 살벌한 여인
달콤한 인생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댄서의 순정
데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마뱀
동감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승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두사부일체
뚫어야 산다
라디오스타
라이터를 켜라
령
로드무비
리베라 메
마더
마들렌
마린보이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마이제네레이션
마이 파더
마지막 늑대
말아톤
말죽거리 잔혹사
맨발의 꿈
멋진 하루
미녀는 괴로워
미술관 옆 동물원
미스터 소크라테스
밀양
바람난 가족
바람피기 좋은 날
바르게 살자
박봉곤 가출사건
박수칠 때 떠나라
박쥐
박하사탕
반가운 살인자
반칙왕
방과후 옥상
방자전
백만장자의 사랑
버스정류장
번지점프를 하다
범죄의 재구성
베스트셀러
복수는 나의 것
봄날은 간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부당거래
부산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어라 봄바람
불후의 명작
뷰티풀 선데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밀애
비스티 보이즈
빙우
뽕
사랑니
사랑따윈 필요없어
사랑을 놓치다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사랑해 말순씨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새드무비
색즉시공
선물
선생 김봉두
소년, 천국에 가다
수취인불명
숙명
순애보
쉬리
슈퍼스타 감사용

스승의 은혜
스카우트
시
시라노 연애조작단
시월애
시크릿
식객-김치전쟁
신라의 달밤
신부수업
심장이 뛴다
싱글즈
싸움의 기술
써니
아 유 레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아는 여자
아랑
아름다운 시절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아이스케키
아저씨
아파트
악마를 보았다
악어
안녕! 유에프오
안녕, 형아
알포인트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약속
어깨너머의 여인
어린 신부
억세게 운수 좋은 날
얼굴 없는 미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엠
여고괴담5
여배우들
여자, 정혜
역도산
연애
연애, 그 참을수 없는 가벼움
연애소설
연애의 목적
연풍연가
열혈남아
엽기적인 그녀
영어완전정복
영화는 영화다
예스터데이
예의 없는 것들
오! 브라더스
오! 수정
오감도
오로라공주
오아시스
올가미
올드보이
와니와 준하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일드카드
외출
용서는 없다
용의주도 미스 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형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묵배미의 사랑
우아한 세계
울학교 이티
웰컴 투 동막골
위대한 유산
유령
육혈포 강도단
음란서생
의형제
이중간첩
인디안 썸머

인사동 스캔들
인샬라
인어 공주
인터뷰
인형사
일단 뛰어
자카르타
잔혹한 출근
잠복근무
장화, 홍련
전설의 고향
접속
정사
조선명탐정
조용한 세상
조용한 가족
좋지 아니한가
주먹이 운다
주홍글씨
죽이고 싶은
중독
중천
즐거운 인생
지구를 지켜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힘
집행자
짱
쩨쩨한 로맨스
처녀들의 저녁식사
천하장사 마돈나
청담보살
청연
청춘만화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
사건
초록물고기
최강로맨스
추격자
친구
친절한 금자씨
카라
클래식
클럽 버터플라이
킬러들의 수다
킹콩을 들다
타짜
태극기 휘날리며
태양은 없다
태풍
텔미 썸딩
퇴마록
투캅스
튜브
파괴된 사나이
파란 대문
파란 자전거
파랑주의보
파송송 계란탁
파업전야
파이랑
펀치레이디
편지
평양성
평행이론
폭력써클
품행 제로
플라스틱 트리
플라이 대디
플란다스의 개
피도 눈물도 없이
피막
하녀
하루
하얀 방
해변의 여인
해안선
해피 엔드
행복
행복한 장의사
헬로우 고스트
혈의 누
형사 Duelist

호로비츠를 위하여
홀리데이
홀길동의 후예
홍반장
화려한 휴가

드라마 대본 목록

1%의 어떤 것 1-26회
2008 전설의 고향 1-8회
2009 외인구단 1-16회
38사기동대 1-16회
49일 1-20회
90일, 사랑할 시간 1-11,14-16회
9회말 2아웃 1-16회
가문의 영광 1-50회
가시나무새 1-2회
강남엄마 따라잡기 1-18회
강적들 1-16회
개와 늑대의 시간 1-16회
개인의 취향 1-16회
거짓말 1-20회
거침없이 하이킥 1-167회
건빵선생과 별사탕 1-16회
검사 프린세스 1-16회
겨울연가 1-20회
결혼 못하는 남자 1-16회
결혼하고 싶은 여자 1-18회
결혼해 주세요 1-2회
경성 스캔들 1-16회
고독 1-20회
고맙습니다 1-16회
고스트 1-16회
공부의 신 1-16회
공주가 돌아왔다 1-16회
공항 가는 길 1-16회
구미호 외전 1-16회
국회 1-20회
굿바이 솔로 1-16회
궁 1-24회
귀여운 여인 1-10, 13-16회
그 여자 1-20회
그대, 웃어요 1-45회
그대 그리고 나 1-58회
그들이 사는 세상 1-16회
그린 로즈 1-22회
그저 바라보다가 1-16회
글로리아 1-12회
기적 1-4회
김가 이가 1-25회
김치 치즈 스마일 1-12회
꼭지 1-50회
꽃보다 남자 1-20회
꽃보다 아름다워 1-30회
나쁜 남자 1-18회
난폭한 로맨스 1-16회
남자이야기 1-20회
낭랑 18세 1-16회
내 남자의 여자 1-14회
내 사랑 내 곁에 1-4회

내 사랑 못난이 1-20회
내 사랑 팥쥐 1-10회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1-16회
내 마음을 뺏어봐 1-16회
내 마음이 들리니 1-26회
내 여자 1-24회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16회
내 이름은 김삼순 1회
내 인생의 콩깍지 1-16회
내 인생의 스페셜 1-8회
내게 거짓말을 해봐 1-5회
내조의 여왕 1-20회
너의 목소리가 들려 1-18회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16회
네 멋대로 해라 1-20회
네 자매 이야기 1-20회
노란 손수건 1-132회
눈길 1-2회
눈꽃 1-16회
눈물이 보일까봐 1-16회
눈사람 1-17회
눈의 여왕 1-16회
뉴하트 1-23회
닥터 깽 1-16회
닥터 챔프 1-16회
단팥빵 1-26회
달자의 봄 1-22회
달콤한 나의 도시 1-16회
달콤한 인생 1-19회
달팽이 1-16회
대물 1-24회
대한민국 변호사 1-16회
더킹투하츠 1-20회
도깨비 1-16회
돌아와요 순해씨 1-16회
두 번째 프로포즈 1-16회
드림 1-20회
떼루아 1-8회
라이벌 1-20회
러브레터 1-16회
러브스토리 1-16회
러빙유 1-12회
로망스 1-16회
로맨스 헌터 1-16회
로맨스가 필요해 2011 1-16회
로열패밀리 1-18회
마당 깊은 집 1-8회
마왕 1-20회
마이 프린세스 1-6회
마이걸 1-2회
마이더스 1-3회
맛있는 청혼 1-16회
맨땅에 헤딩 1-40회
메리 대구 공방전 1-16회
명가 1-10회
명랑소녀 성공기 1-16회

모래시계 1-24회
못된 사랑 1-20회
몽땅 내사랑 1-103회
미남이시네요 1-16회
미스 리플리 1회
미스터 굿바이 1-16회
미안하다, 사랑한다 1-16회
민들레가족 1-16회
밀회 1-16회
바보같은 사랑 1-20회
반달곰 내 사랑 1-16회
반짝반짝 빛나는 1-40회
발리에서 생긴 일 20회
밤이면 밤마다 1-17회
백설공주 1-16회
베토벤 바이러스 1-18회
변호사들 1-16회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170회
별순검 시즌 2 1-20회
별은 내 가슴에 1-16회
별을 따다 줘 1-20회
보고 또 보고 1-273회
봄의 왈츠 1-20회
부자의 탄생 10-11회
부활 1-24회
불꽃 1-20회
불꽃놀이 1-17회
불새 1-26회
불한당 1-16회
비단향꽃무 1-20회
비밀 1-18회
비밀남녀 1-20회
비밀의 교정 1-24회
비포&애프터 성형외과 1-20회
사랑한다 말해줘 1-15회
사랑해 당신을 1-16회
사랑해 울지마 16-24회
산부인과 1-16회
살맛 납니다 11-20, 100-101회
상도 1-50회
상두야 학교 가자 1-16회
상속자들 1-20회
성균관 스캔들 1-20회
세상 끝까지 1-16회
소문난 칠공주 1-80회
소울메이트 1-12회
설약국집 아들들 1-54회
수상한 삼형제 1-64회
수호천사 1-16회
순풍산부인과 496회
스타의 연인 1-20회
스타일 1-16회
승부사 1-24회
시그널 1-16회
시크릿가든 1-2회
시티 홀 1-3회

식객 1회
신데렐라맨 1-16회
신데렐라 언니 1-18회
신의 1-24회
신의 저울 1-16회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1-8회
싸인 1-20회
썸데이 1-3회
아가씨를 부탁해 1-2회
아내의 자격 1-16회
아름다운 날들 1-24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1-48회
아빠 셋 엄마 하나 1-16회
아이리스 1-8회
아이싱 1-16회
아일랜드 1-16회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1-7회
안녕 내사랑 1-16회
안녕하세요 하느님 1-16회
알게 될거야 1-19회
애정의 조건 1-12, 14-39,41-60회
어느 멋진 날 1-16회
얼렁뚱땅 흥신소 1-16회
얼마나 좋길래 1-125회
에덴의 동쪽 1-56회
에어 시티 1-16회
여름향기 1-7회
여우야 뭐하니 1-16회
여인의 향기 1-16회
역전의 여왕 1-2회
연애결혼 1-16회
연애시대 1-16회
연인 1-20회
열아홉 순정 1-30, 32-167회
오 나의 귀신님 1-16회
오! 마이 레이디 1-17회
오! 필승 봉순영 1-16회
옥션하우스 1-4회
옥탑방 고양이 1-16회
온달 왕자들 1-63, 65-130,
148, 170회
온 에어 1-21회
올드 미스 다이어리 1-232회
올인 1-24회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1-16회
욕망의 불꽃 1-50회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44회
우리 집 1-20회
우리 집 여자들 1-24회
웃어라 동해야 1-155회
워킹 맘 1-16회
원더풀 라이프 1-16회
웨딩 1-18회
웨딩드레스 1-22회
위기일발 풍년빌라 1-16회
은사시나무 1-3회

이 죽일 놈의 사랑 1-16회
이네 자매 이야기 1회-20회
이브의 모든 것 1-20회
이웃집 웬수 1-10회
인생은 아름다워 1-15회
인생화보 1-201회
인순이는 예쁘다 1-16회
인연 만들기 1-14회
자명고 1-21, 23-39회
자이언트 1-60회
장난스런 키스 1-16회
장밋빛 인생 1-24회
전설의 고향 -씨받이
제빵왕 김탁구 1-30회
제중원 1-17회
종합병원2 1-6회
좋은 사람 1-16회
줄리엣의 남자 1-17회
즐거운 나의 집 1-2회
지붕 뚫고 하이킥 1-53, 99-125회
진실 1-16회
짝패 1-3회
쩐의 전쟁 1-16회
찬란한 유산 1-28회
천국의 계단 1-20회
천만 번 사랑해 18-25회
청춘의 덫 1-24회
초대 1-18회
최강! 울엄마 1-18회
최고의 사랑 1-2회
추적자 the chaser 1-16회
카이스트 6-67회
카인과 아벨 1-20회
칼잡이 오수정 1-16회
커피프린스 1호점 1-17회
커피하우스 1-8회
케세라세라 1-17회
코끼리 1-124회
쾌걸춘향 1-17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16회
타짜 1-20회
탐나는도다 1-15회
태양을 삼켜라 1-25회
태양의 여자 1-20회
태양의 후예 1-16회
토마토 1-16회
트리플 1-16회
파라다이스 목장 1-16, 31회
파리의 연인 1-20회
파스타 1-20회
포도밭 그 사나이 1-16회
푸른 안개 1-20회
풀하우스 1-16회
프라하의 연인 1-5, 9-17회
프로포즈 1-14회
피아노 1-16회

하얀 거탑 1-20회
학교1 1-16회
학교2 1-42회
학교2015 1-16회
한반도 1-18회
한성별곡 1-8회
햇빛 속으로 1-16회
행복한 여자 1-58회
헬로! 애기씨 1-16회
형수님은 열아홉 1-19회
호텔리어 1-20회
혼 1-5회
화려한 시절 1-50회
환상의 커플 1-16회
황금마차 1-196회
황금사과 1-30회
황금신부 1, 10-22회
히트 1-20회
힐러 1-20회
W 1-17회

中文摘要

韩国语句末的‘-지 뭐’研究

李青香

韓國語言文學系 韓國語言學專業

国立首尔大学 研究院

本文研究的目的是以口语语料库为基础， 通过观察句末‘-지 뭐’的使用情况。将‘-지 뭐’的用法分为与命题相关的用法和与行为相的用法，对各自的句法特征和语义特征进行论述，与此同时，还将了解‘-지 뭐’的话语功能及与其有关联的韩语和中文表达。

在针对‘-지 뭐’的用法进行细分前，首先在第二章论述了‘-지 뭐’的构成要素，‘-지 뭐’是话语标记‘뭐’，在终结语尾‘-지’后面相结合而形成。‘-지 뭐’可分为与命题相关的‘-지 뭐$_1$’和与行为相关的‘-지 뭐$_2$’。

第三章论述了与命题相关的‘-지 뭐$_1$’的句法特征和语义特征。首先我们从句型、先行用语、尊称表达、时态等方面论述了‘-지 뭐$_1$’的句法特征。从‘-지 뭐$_1$’的语义特征来看，话者的态度大体上可分为‘不在乎’、‘毋庸置疑’、‘无可奈何’、‘不情愿、烦躁/厌烦’等四种。

第四章论述了与行为相关的‘-지 뭐$_2$’的句法特征和语义特征，‘-지 뭐$_2$’也从句型、先行用语、尊称表达、时态等方面对其句法特征进行了论述， 并对‘-지 뭐$_1$’和‘-지 뭐$_2$’的句法特征进行了比较与整理。通过不同的行为主体对‘-지 뭐$_2$’进行语义特征的分析后， 其结果表明当行为主体为话者、第三者、话者与第三者时， 皆表达着‘行为承认’这一语义。此外， 当听者作为主体时，其主要表达着‘行为劝告’和‘行为承认’的语义； 当话者和听者作为主体时， 其主要表达着‘行为提议’的语义。

第五章论述了谈话中所体现出的‘-지 뭐’功能。从‘-지 뭐’的话语功能来看，主要具有‘停止进一步讨论’、‘贬低评价’、‘协商/交涉’、‘缓和’、‘强调’的功能。

第六章论述了被视为‘-지 뭐’关联表达的 ’-네 뭐’、‘-ㄴ데 뭐’、中文‘呗’的语义特征，并与‘-지 뭐’进行了比较。

第七章针对前文所讨论的内容进行了整理和总结。

关键词：‘-지’，‘뭐’，终结形，终结语尾，‘呗’，情态，话语功能
学号：2020-25619